국가유산수리협회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Association

문화유산담

문화유산을
이야기하다, 담다

VOL. 07 | SPRING 2024
QUARTERLY MAGAZINE

Contents

Part. 01
협회 소식

2024년 정기총회 03
제5대회장 선출 04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현황과 개선과제 세미나 06

Part. 02
문화유산 수리의 역사

대를 이어 문화재건축에 헌신한 역사, 장순용 09

Part. 03
잊혀진, 사라진 것들

우리 《한성순보》의 런던 '수정궁' 뉴스 다시 읽기 17

Part. 04
문화유산연구 및 조사

조선시대 수군과 경상좌수영 수군 영·진의 성곽 27

Part. 05
세계의 유산보존

자연과 함께하는 주거환경 및 건축의 변화 35

Part. 06
담론

중요한 것은 '국가유산'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실질이다 43
'문화재'라는 말이 사라진다고? 46

Part. 07
문화유산 서가

『문화재의 개념』 50
『만들어진 사회적 기억, 문화재 인식의 역사』 51
『모나리자의 집은 어디인가: 문화유산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의 세계사』 52
『Uses of heritage』 53

Part. 08
문화유산 산책

고창 중산리 이팝나무 54

문화유산
문화유산을 이야기하다, 담다 / 담

문화유산 담
발행일 2024.03.25. **발행인** 강석묵 **발행처** 국가유산수리협회 **편집위원** 박용철 **편집** 유혜진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3 로얄타워 7층 **전화** 02 584 1866
홈페이지 kcpra.or.kr **이메일** kcpra@naver.com **기획 · 디자인** 감커뮤니티 02 6713 0999

* 외부 필자에 의해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유산수리협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Part. 01

협회소식

2024년 정기총회 | 03
제5대회장 선출 | 04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현황과 개선과제 세미나 | 06

2024년도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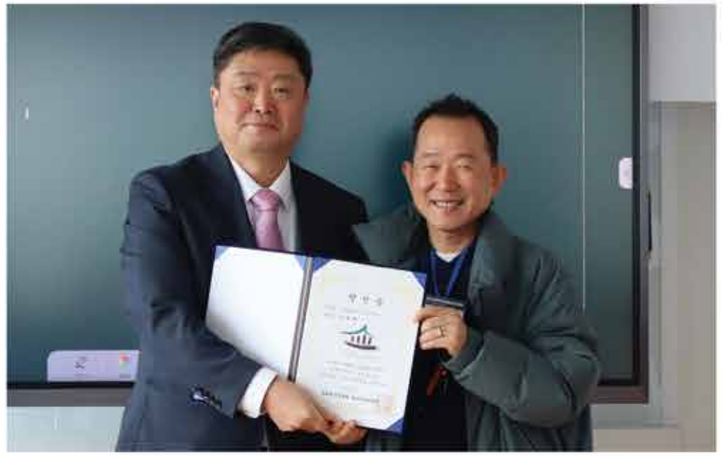
2024.02.22.

2024년 2월 22일 문화재수리협회에서 협회임직원과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결산 및 202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정관개정, 임원선출에 대한 보고와 승인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협회의 제5대회장에 대한 선출이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신임회장과 함께 향후 2년간 협회를 위해 헌신할 임원진에 대한 승인도 이루어졌다.

제5대회장 선출

2024.02.22.

향후 2년간 문화재수리협회를 이끌어갈 제5대 회장으로 강석목 (주)고진티앤시 대표가 선출되었다. 강석목회장은 협회가 태동하던 설립발기인 시기부터 시작하여 사단법인 시절을 거쳐 오늘날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협회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온 몇 안되는 사람들 가운데 한사람으로 회원들이 기대하는 바 또한 각별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외적으로 폭 넓은 활동력을 보이고 있어 협회가 성장, 발전하는데 있어 탁월한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석목 제5대 신임회장에게 이봉수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증을 수여했다

강석목회장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사업 목표를 공표하며 의욕적인 출발 모습을 보였다.

1. 공제조합을 별도 법인으로 추진
2. 협회의 고유업무 확대방안으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협회 활성화 (지역별 민원 수용, 이사회를 지역에서 개최 등)
3. 협회지 "문화유산 담" 영역 확대(세계유산 시공사례, 새로운 공법 및 전통기법 시공방법 재연, 우수시공사례 기재 등)
4. 목재, 석재, 미장, 창호, 미장재료, 초가자재수급처 등 활성화
5. 노임단가 조사를 문화재청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제5대 임원진 명단

2024.02.22.

연번	직위	성명	지역	소속	종목
1	회장	강석목	인천	(주)고진티앤시	보수
2	수석부회장	김호준	경기 고양	(주)현영종합건설	보수
3	부회장	이봉수	전남 화순	(주)삼진건축사사무소	설계.감리
4	부회장	배성택	경남 의령	남영종합건설(주)	보수
5	부회장	이석범	서울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감리
6	이사	백경기	강원 원주	(주)우리문화	보수
7	이사	이상한	전북 정읍	(주)예원종합건설	보수
8	이사	류재선	경기 고양	(주)한누리종합건설	보수
9	이사	박동수	경북 경주	예이제엔지니어링(주)	보수
10	이사	박성주	충남 공주	세운(주)	조경
11	이사	김영택	서울	(주)담원문화유산	보존
12	이사	안경호	전북 전주	(주)도시건축사사무소	설계.감리
13	내부감사	최병선	충남 서산	춘추문화재수리기술단	감리
14	외부감사	이현정		지우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5	상임이사	박용철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현황과 개선과제 세미나

2023. 12. 20.

협회에서 발간한 『문화유산수리총서』「현장에서 바라본 문화재수리표준품셈의 제(諸)과제」(우리문화연구소 곽순조 2023.05.30.)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협회에서는 우리문화연구소의 곽순조소장과 최종미소장이 발표자로 참여하여 주축을 담당하였으며 공동주최를 담당한 단체 외에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한국건축정책연구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주대학교, 명지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합리적인 표준품셈을 만든다는 맥락 안에서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의 토론과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각 기관간의 꾸준한 교류의 장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일 시 : 2023. 12. 20.(수) 14:00 ~ 18: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 주 최 : 문화재수리협회,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사)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Part. 02

문화유산 수리의 역사

대를 이어 문화재건축에 헌신한 역사

(주)삼아성 건축사사무소 대표 | 장순용

1965년 건축교육을 하던 장기인(張起仁, 1916~2006)은 고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삼성건축사무소'를 창립하여 실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에 국내의 각종 문화재보수복원설계를 주도해나갔는데 1970년대 후반 정부에서 한국전쟁으로 파손된 수원의 화성(華城)을 대대적으로 복원할 계획을 세우고, 그 설계를 장기인이 설립한 삼성건축사무소에 맡겼다. 삼성건축사무소에서는 각종 사진과 사료를 수집하여 복원설계에 참고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화성성역의궤』였다. 『화성성역의궤』에는 다른 어떤 영건의궤들보다 도설이 많이 실려 있어 그동안 연구자들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복원설계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의궤의 확보와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쉽지 않았던 듯하다. 『화성성역의궤』는 이미 1965년 수원문화재보전회에 의해 영인출판된 것이 있기는 했지만 삼성건축에서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의궤를 빌려 복사해서 봤다는 증언으로 볼 때 이 출판본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화성복원정화사업과 더불어 수원시에서는 『화성성역의궤』의 국역을 진행했는데 이는 가장 먼저 국역된 의궤라는데 의미가 있다. 화성은 복원되었음에도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화성성역의궤』가 복원된 화성의 진정성을 증명하기에 차고도 넘치는 자료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때부터 영건의궤는 문화재복원의 고증사료로서도 인식되기 시작했다.

당시 화성복원설계를 하던 삼성건축사무소에는 장기인의 아들인 장순용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건축사를 연구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화성성곽 중에서 문루와 초루의 설계를 담당했다. 그는 이때 처음 『화성성역의궤』를 접했으며, 그 외에 다른 의궤에 관해서는 1980년대 초반 문화재연구소의 인턴시절의 경험을 통해 그 존재를 인식했다고 한다. 그 후 장순용은 장기인의 업을 이어 삼성건축사무소의 소장이 되었고 1980년대부터 진행된 궁궐문화재 복원설계에 더욱 많은 영건의궤를 활용했으며 지금도 학계연구자들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의궤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정남, 『조선왕조 의궤의 현황과 전망』, 「건축사분야의 연구성과와 전망」 중에서(국립중앙박물관, 2012.12.)

- 서울고등학교(1966 졸업)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1971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1977 석사)
- 건축사 면허(1982)
- 문화재 실측설계기술자(1982)
- (사)한국건축역사학회 회장 역임
-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겸임교수 역임
- 국무총리 표창(청계천복원건설)

대담은 (주)삼아성 건축사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

장순용선생은 대뜸 협회 걱정부터 했다.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데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협회 이야기를 하고자 뵌 것은 아닌데 뭔가 본말이 전도되는 것 아닐까. 의도치 않게 협회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경력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뜻밖에 선생은 기능자의 복지에 대해 큰 염려를 안고 있었다.

"근데 제일 어려운게 기능자들이 고정된 직장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여기저기서 일하다가 그만두는 식으로 계속되니까 생활도 안정되지 않고 노후도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경력관리에 있어서도 이력이 단절되고, 한 해 동안에 어느 정도의 어떤 실적들을 가지고 한 그런 통계 자료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생산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문화재청에서 사업 구상을 해줘야 되는 일인데 뭔가 국민연금 들듯이 연금을 들게 하고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서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동안은 연금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비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맨날 전통 기술은 보존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외시가 되는 상황이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

선생은 노임단가에 대해서도 식견을 피력하였다.

"해마다 그 노임 조정하는 문제들이 내역서 산출할 때도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정부에서 고시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문화재는 희소성이라던가 조금 더 특수한 부분이 일반 건설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요. 통계가 좀 제대로 잡히고 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문화재분야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계사무실 하면서 느꼈던 것이 결국은 문화재청에서 절실하게 공감을 하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뭐 말로는 그럽시다 해놓고는 돌아서 그만이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이게 전문 분야가 돼서 문화재가 다양한 분야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전체 식구들을 정상적으로 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뭔가 좀 수익성이 있는 일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전체 구성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될텐데 수월치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산 넘어서 산이죠, 앞으로 갈 길이. 그런 얘기들이 벌써 한 수십 년 전부터 했던 얘기들인데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게 아니라 선생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자 함이 대담의 취지였고 선생의 기억을 듣고자 하는 바가 목적이었기에 화제를 돌려보았다.

"저희 협회에서 이 코너를 진행하는 방향은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하셨고 의미 있는 족적도 남겼지만 오히려 그런 이유로 해서 그다지 각광을 받지 못하신 원로분들의 기억을 남겨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뷰한 최승일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면에 실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가족분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고마워하셔서 저희가 오히려 몸 둘 바를 몰라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특히 지니고 계셨던 오래된 사진들은 극히 희귀한 것들이라 그 사진들을 게재하는 지면만을 따로 할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터뷰에 응하기 힘들 정도로 노쇠해지셨고, 최소장님은 저희 인터뷰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작고하셨거든요. 인터뷰를 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고 저희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옳다는 자신감을 얻었었지요. 그래서 말씀인데 선생님께서도 오래된 사진 같은 것들 몇 장이라도 찾아주실 수 있으실지요?"

얄팍한 의도는 선생의 일언지하에 풍비박산 나버렸다.

"근데 나는 설계사무소 일만 쭉 해서 끝났기 때문에 사무실 도면들이나 책도 상당부분을 전부 한양대학교 건축과 자료실로 옮겨 놓았고, 남은 게 여기 있는 것들이예요. 그거는 한양대학교에서 그냥 무상으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연구하는 데도 많이들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장순용선생은 선친 때부터 소장해온 한국 고건축관련 자료들을 2018년 모교인 한양대학교에 기증하였다. 자료는 도면이 5,752건, 서책류 2,215권, 사진과 실측장 1,697건, 용역관련서류 488건이며 미분류된 자료가 3천건 이상이다. 특히 디지털자료가 축적되기 이전 시기의 도면이나 실측자료 등은 국내유일본이 많아 학술적 가치 외에도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한다.

아, 자료를 구하고자 함이 아니었는데 곡해를 한 것이었을까. 그게 아니라 원로들의 기억을 담고 기념사진 같은 것들을 제공 받아 협회지에 싣는데 큰 방향이 있다, 개인적인 기억으로 묻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아쉽지 않느냐고 부언을 했지만 공은 더 먼 곳으로 튀어버렸다.

"남의 사진은 많이 찍어도 내 사진은 별로 없어요. 그보다는 그 동안에 제가 도배지에 대해 계속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최근에는 어쨌든 문양을 복원해내는데 내가 그동안에 해놨던 샘플자료들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옛날사진자료보다는 도배지문양 사진을 오히려 좀 부각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원로라 하기에도 넘칠 연륜을 쌓았음에도 지나간 추억에 젖기보다 머릿 속에는 여전히 문화재가 가득하다고 웅변하는 것 같았다. 아무래도 핀을 맞추기가 쉽지 않겠다.

궁궐 창호와 도배지에 대한 무한 애정

"설계사무실 하면서 늘 어려웠던 것이 궁궐 복원하고 이럴 때 궁궐 안에 모범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경궁 중창 공사할 때 그걸 실무진으로 담당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편전이나 이런 것들의 창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도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고 있었는데 궁궐 방면에서는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접근도 쉽지가 않고 또 대조전이나 이런 쪽은 내부에 들어가 볼 수 없고 바깥에서 들여다보는 정도밖에 허락이 안되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1993년도에 운현궁 보수 공사 설계를 맡으면서 운현궁을 조사했을 때 그때 창호 관계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봤었어요. 그 운현궁 건물이 결국은 나라에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비교하다 보니까 궁궐 건축 양식하고 민가 건축 양식하고 다 혼재돼 있는 상황이고 창호에 관해서는 어디에 어떤 창호가 설치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때 상당히 많은 해답을 얻었었지요.
창호문제가 하나 거기서 해결이 됐는데, 또 하나는 그때 그 도배지를 수거해가지고 그걸 분해해서 쭉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뭐 창호지 몇 겹 정도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합판처럼 두껍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한 층에 한 켜에서 수십 장의 도배지 문양이 나와서 그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이후로 도배지 자료를 수거할 수 있는 특히 궁궐 건축이나 좀 오래된 건물에서 그걸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도배지에 대해서 적어도 고종 때 도배지가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지요.
그랬는데 그 창덕궁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자고 준비할 때, 건물들을 조사하기 전에 도배지 좀 수거해서 연구 분석시키는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창덕궁에서 좀 그걸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까지 했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야 이제 그 도배지 중요성을 또 인식을 해가지고 대조전 이쪽 정비하면서 도배지를 복원하겠다고 해서 그때 조금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동안 모아놨던 도배지가 중요한 객관적 근거 자료가 됐었지요."
궁궐창호와 도배지 이야기가 나오니 선생의 대화에 열기가 오르는게 느껴졌다.

"제일 어려웠던 게 도배지를 분리하는 작업이었어요. 조선 말기 가면 아마 시대 경제 상황이 그랬던 것인지 지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우리는 한지로 알고 있는데 한지가 아니고요. 양지인데 아주 아주 얇은 종이들이어서 뜯어내면 이렇게 부스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지요. 다만 운현궁의 초창기 도배지를 보니까 시기가 올라가서 그건 제대로 된 한지에다가 목판 인쇄를 했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 인쇄 방법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은 걸 보고 또 어떤 때는 좀 미끌려서 움직인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 걸 봐서 뭔가 불안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도배지 문양이 그러니까 최초에 운현궁을 나라에서 짓고 준공했을 때 도배를 당연히 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하면서 참 재미있게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했었지요. 그렇게 운현궁 할 때가 벌써 30년 전 얘기인데 그 사이에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현장이면 거기에서 샘플을 채취하곤 했었는데 다른 현장은 내가 채취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한 번은 학생들 데리고 창덕궁 현장 학습을 나가서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석복헌 앞마당에 폐기물들을 쌓아놨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어떤 폐기물인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도배지가 보여요. 그게 중요한 자료 같아 하나 들춰 보니까 도배지 문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거 왜 가져가냐고 잔소리 할까봐 많이는 못 가져오고 그냥 큼직한 거 하나 찢어가지고 가방에다 집어 넣고 나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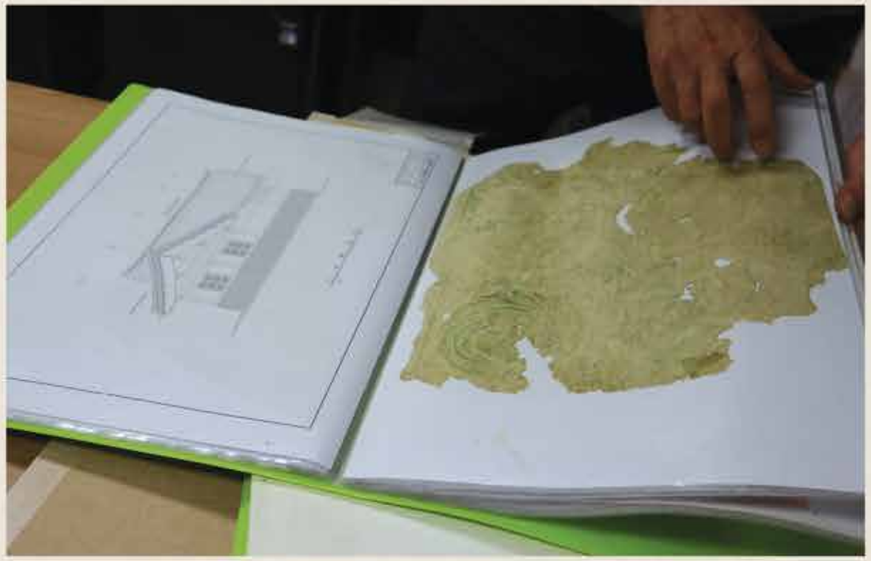
가지고 와서 분리를 해봤는데 근데 거기서 석복헌 초창기 도배지를 발견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한 거죠. 그 문양이 오복 문양이라고 박쥐 5마리가 둘러 있고 가운데 임금 왕자가 써있는 거죠. 민간에서는 임금 왕자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문양이 있는 도배지가 부착된 켜를 순서대로 보니까 맨 마지막 층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배지가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석복헌 중건공사하면서 만들어진 도배지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 후에도 고궁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제 도배지를 전시한 적도 있었고요."

<장덕궁 석복헌> 천장 장배지 1848년 - 백분, 청색염료 인쇄

편복문은 길상문의 하나로 박쥐를 새긴 문양이다. 박쥐 편(蝙)에 박쥐 복(蝠)자를 쓴다. 복(蝠)자의 중국어발음이 복 복(福)자와 같은 [fú]로 발음되기에 오복(五福)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 마침 우리말로도 발음이 같다. 원래는 다섯 마리를 표현하는 것이라 하는데 마릿수에 상관 없이 편복문이라 해준다. 창덕궁 석복헌의 천장 도배지로 사용되었던 이 종이는 다섯 마리의 박쥐를 빙 둘러서 그려 넣어 편복문을 제대로 새겨 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임금 왕(王)자를 넣어 왕실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왕(王)자 주변에 목숨 수(壽)자를 형상화하여 크게는 수복문의 범주에 들어간다. 1848년 도배한 것이라고 한다. 오른 쪽 아래 흰 색이 도드라진 부위는 훗날 그 위에 도배되었던 도배지로 문양이 다르다. 도배할 때 이전 도배지를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 덧발랐기 때문에 오늘날 제거하다 보면 여러 겹의 도배지가 중첩되어 합판처럼 딱딱한 상태를 마주하게 된다.

그처럼 희정당에서 1년간 작업하면서 수집한 자료는 다행히도 책자와 디지털자료로 남길 수 있었다. 천만다행히도 건축과교수인 아들이 희정당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디자이너인 며느리와 함께 자료화작업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한 발 더 나아가 전공으로 매달려 이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다. 3대에 걸친 문화재사랑이다. 아쉬운 것은 선생 자신이 도배지 원본을 보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 중요도가 있는 것들을 모아놓는다고는 했지만 박물관이든 궁궐이든 남은 자료들을 보관해 놓지는 않았을 터이니 사라져버렸을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선생의 어투에서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같은 아쉬운 감정에 더해 뿌듯함이나 소명의식같은 상반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묻어났다. 스크랩해놓은 도배지 견본을 보여주며 설명하실 때에는 인터뷰의 시간 중 가장 뜨거운 열기가 느껴질 정도였다.



수집한 자료는 장소와 일시를 알 수 있는 도면과 함께 파일로 꼼꼼히 저장되어 있었다

그 분야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다 보니 어렵고 부족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조선말 인쇄술에 대해 연구한 학자나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라 했다.

"서양식 인쇄기 뭐 이런 거 얘기는 잘 하는 반면 국내에서 어떤 식으로 인쇄 기술이 발전해 왔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게 되어야 왜 어느 시기에 이런 종이가 쓰여졌고 어떤 안료가 쓰여졌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기록도 없고 실물 샘플들도 마땅치 않으니까요. 다행이라면 아직까지는 벽 속에 잠겨져 있다는 건데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가장 애착이 가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내심 의궤를 문화재복원사업의 효시로 만든 수원 화성의 복원 아닐까 하고 예단하고 있었는데 운현궁복원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 이유가 놀라웠다. 가장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뭔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았다고나 할까.

"그 건물에서 도배지 뿐만 아니라 궁궐창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창호의 구성원리를 나름대로 연구해서 간단한 논문도 몇 편 썼고요. 이렇게 창을 보면 두 장 문 안에 창호가 있는데, 그 종류가 영창이 있고 홑창이 있고 갑창이 있고 쌍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닫으면 4중으로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가보면 그냥 달랑 안에 장지문 하나 있고 바깥에 살창 하나 있어요. 그런 것들이 홉은 다 있는데 전시하고 그러면서 관리가 귀찮아서 그런 건지 어쨌든 대부분 제거가 됐고 없어진 거죠. 그게 인지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관리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건물에 수백 짝 창이 나오는데 그거 한 번 도배하면 창 위치가 또 바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위에다가 그 일련 번호처럼 천지현황 혹은 한문으로 쓰면서 그 위치를 적어놓은 걸 봤었는데 그렇게 하면 창호 떼어서 도배하고 맞춰서 갖다 끼워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서로 안 맞고 짝이 안 맞는 창호들이 설치된 것들도 많고 그렇게 된 것이죠."

덕수궁 준명당에서 나온 용봉문(龍鳳紋) 도배지. 의궤에 용봉문이라는 명칭으로 나오는데 실물을 확인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용문(龍紋)과 봉문(鳳紋)이 교대로 새겨져 있다.

초배지로 한지를 사용한 경우. 조선시대에 "과거 시험지(낙폭지, 落幅紙)를 모아뒀다가 공사장에 몇 축을 보내 사용하게 했다."는 기록이 『궁궐영건도감의궤』에 남아있다고 한다. 창덕궁 석복헌 천장 초배지. 1848년 도배.

운현궁 안채인 노락당에서 나온 도배지. 능화지(菱花紙) 위에다 또 금박을 찍은 것. 금박은 용문양이다. 바탕은 청색안료를 사용한 청능화지. 능화지를 만드는 사람이 납지장(蠟紙匠)이다. 목판에 능화무늬를 새기고(菱花板) 그 위에 종이를 올린 다음 밀납을 밀어 무늬를 찍어냈다. 이 때 안료 사용 여부에 따라 청능화지와 백능화지로 구분된다. 용문양은 간격이 고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목판도장을 만들어 찍은 것으로 보인다.

운현궁 안채인 노락당에서 나온 도배지. 금색 바탕의 능화지(菱花紙) 위에다 청색의 영기문을 찍은 것. 앞의 도배지와 같은 도안의 목판에 색상을 반대로 배치하였다.

능화문의 테두리 가운데에 국화문양을 넣었다. 패턴과 디자인이 같아 동일한 종류의 목판으로 여겨지는데 색상만을 바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국화문은 늦은 서리까지 견딘다 하여 지조를 상징하는 길상문으로 쓰였다.

다양한 문양의 도배지들. 창덕궁 석복헌, 덕수궁 준명당, 운현궁, 회덕 동춘당, 통영 통제영지 등등 다양한 장소에서 수집되었다. 대체적으로 능화문을 기본으로 하여 거북문양이나 꽃문양을 비롯하여 서양식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같은 패턴인데 안료만 다른 것도 있고 조금씩 변화를 준 것도 있다.

많은 현장을 관장하는 회원사들의 집합체인 협회가 그런 연구를 하기에 적합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당부에 역량부족을 핑계로 내세워야 하는 처지가 송구스러웠다.

문화재의 모든 분야에 대한 무한 애정

문화재에 대한 선생의 열의와 애착의 범주는 끝이 없었다. 이번에는 벽체와 담장.

"최근에 외엮기에 대해 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가 나왔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가 또 논의가 되어야겠지요. 옛날식으로 수수깡 가지고 엮으라고 할 수도 없고 대나무가 나지도 않는 지역에서 대나무로 외엮기 하라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이고 현대에 와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것들도 좀 연구가 되고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실태를 조사할 필요도 있고 그런 쪽에 좀 어쨌든 그 문화재 발전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뭔가 테마를 자꾸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표준화를 해버리는 바람에 전국 어디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질이나 이런 것에 무관하게 그냥 같은 방식과 재료로 하라고 하는게 문제예요. 현장에서는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책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수 공사 현장에서 제일 불만인 게 마무리 도배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뒀어요. 그냥 도배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 도배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일을 못 봤고 괜히 뭐 관계도 없는 사람이 가서 객쩍은 소리 했다가 욕밖게 먹는게 없는 거고. 창호지 바르는 일을 경미한 수리로 생각을 해버리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배공이 아니라 표구공이 해야지, 풀도 다르고 풀칠이라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물점에서 합성풀 사다가 아무나 할 거 아니예요. 잘 붙으니까."

"담장도 그래요. 담장 쌓기 할 때도 재래식 쌓기는 사고석에다가 새끼를 감아서 진흙을 채워서 쌓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새끼 감는 것도 이제 안 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보수는 또 어떻게 하는지, 어쩌다 담장을 보면 담장이 아예 누더기예요. 한 담장 안에 여러 가지 형식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도대체 원래 담장이 어떤 거였느냐 하는 걸 알 수 없게 돼버린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해 시공한 건물이나 여러 어떤 해당 문화재에 대해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객관적으로 한번 그 평가를 하는 일들을 하면 좋겠어요. 잘못됐다고 지적하자는 쪽이 아니고 이런 건 잘 됐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주어서 향후에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장 준공되면 그건 완벽하게 끝난 것으로 간주해버리니까요. 평가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은 업체는 조금 뭔가 메리트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문화재청에서 지정해 주거나 민간인이 추천을 하거나 해서 그 평가가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러면 그것도 좋은 길이 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예요."

워낙 다양한 분야에 대해 듣다 보니 예정한 두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 아쉬운대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 이 쪽에 입문하시던 이야기와 후학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을 물었다.

"아버님이 한옥 건축에 관심이 있어서 별도로 연구를 하시면서 일반 설계하고 문화재 설계하고 같이 병행해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맡고 나서부터는 버거워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더라고. 그냥 문화재 위주로 한다 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잘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일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일도 그렇고 거쳐간 직원들도 다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결국 그게 이제 무형적으로 심어놓은 후배 양성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지나고 나니까 또 일하면서도 보람은 있었고 문화재를 내가 잘 복원하는 쪽에 힘을 쏟으면서 연구하고 그랬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죠. 어쨌든 잘못했다는 소리는 뭐 듣지는 않고 그런 대로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설계사 사무실 운영이 좀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을 따고서는 또 다른 팀한테 맡겨서 하청으로 하는 그런 데가 많이 생기면서 '자기가 어떤 설계를 했는지도 모르는 소장들도 많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무책임한 삶을 사나 싶기도 하죠.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일에 접근하는게 중요한 부분인데 단순히 돈 문제로만 들여다보면 재미없는 직종이죠. 차라리 그러려면 그 돈 벌기 좋은 데로 가는 게 낫지."

"당부하고 싶다라기보다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모여서 옛날 얘기도 여러 사람이 나눠 듣게 하고 그러면서도 그중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인원이 많으면 분야를 한정해서 한다든가 하면서 좌담회도 갖고 큰 돈 드는 것이 아니라면 정례적으로 좀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마 협회가 할 수 있는 좋은 일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라져가는 업종이나 직종을 좀 조사를 해보는 일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이어가려는 것을 중단시켜야만 했다. 자칫 집에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엄습했기 때문이었다.

Part. 03

잊혀진 사라진 것들

우리 《한성순보》의 런던 '수정궁' 뉴스 다시 읽기

우리근대건축연구소,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 김정동

엑스포와 한성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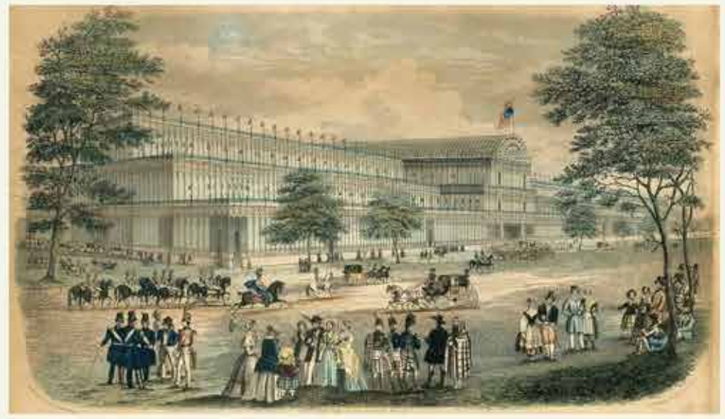
근래 우리는 언짢은 소식 세 개와 마주했다. 잼버리 대회(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2023.8.1-12)는 너무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잼버리와 관계없는 국민들에게 큰 부끄러움을 갖게 했다. 이어 부산시는 2030 세계박람회(EXPO) 유치에 실패, 기대하던 국민 모두에게 실망감을 느끼게 했다(2023.11.29). 119대 29라는 표결결과도 문제지만 다 된 밥이라 떠벌려 온 유치팀에 놀아난 기분이었다. 이어 아시안컵 축구 역시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다. 밤새 나라를 응원했던 국민들은 낙망했다. 더군다나 팀의 멤버들에 대한 배신감에 더 분노하게 되었다(2024.2.7.). 사실 모든 경쟁은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는 것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승패의 결과는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이 세 가지 경우는 너무 허망해 그 치유방법조차 없앴던 것이다.

부산 엑스포의 경우는 우리 준비가 모자란 점도 있었다. 우리는 1993년 대전 엑스포를 경험했다.[1] 당시 국민들의 성원은 대단했다. 그것이 1급 엑스포가 아님에도 그러했다. 이미 일본이 1970 오사카 엑스포(1970.3.15.-9.13)를 성공시켰기에 더 그러했다. 이번 엑스포 유치전에서 국민들은 부산 엑스포와 대전 엑스포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몰랐다. 일본은 이번에도 오사카 엑스포를 유치준비 중이다(2025.4.13-10.13).

첫 엑스포는 영국 런던 하이드 파크에서 시작되었다.[2] 1851년이니까 173년 전의 일이다. 이번에 그 첫 엑스포를 다시 돌아보고자 한다.

19세기 런던은 석탄 도시였다. 시내에는 제분공장, 정당(精糖) 공장, 방적 공장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었다. 거리의 소음과 공기오염은 극을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결과물을 보여 주는 일이 시급했다.[3] 국내는 물론 식민지 국가에게도 그 위상을 보여 주어 영국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그 상징이 박람회 개최였다.

아울러 당시 엑스포 전모를 전한 한성순보를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필자가 이 원고 초고를 쓴 것은 1986년이니 40년 전이다. 그간 한성순보 사진도 발견되고 몇몇 상황도 변화했다. 이번 기회에 한성순보사 사옥을 복원했으면 한다. 우리 언론사에도 중요하고 다음 엑스포 유치전에도 도움이 될까 해서이다. 170여 년의 염원이라면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1851년 영국 런던 하이드 파크에 세워진 엑스포 박람회장 전경

1) <한빛탑>은 대전 유성구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 탑은 1993년, 대전에서 개최된 엑스포의 상징조형물로 세워진 것이다. 93m인 탑의 높이는 개최연도인 1993년에서 가지고 왔다. 설계와 디자인은 홍익대 한도륜(1933-2021) 교수가 했고, 심사와 건축 차문은 김희춘과 필자가 했다. 과거(점성대)와 미래(우주과학)를 탑의 이미지로 했던 기억이 있다.
2) 박람회 전시장은 <하이드 파크>였다. 하이드(hide)는 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3) 산업혁명은 공장건물을 만드는 혁명이었고 유럽 최초의 증기 기관차(1821, 영국 Stephenson)의 등장은 커다란 창거장(停車場)을 요구하게 되었다. 도시는 이제 거대한 건축물로 갈아입게 되었다. 공장 앞길과 액천(앞) 길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바로크식 큰길(大路)로 뚫려져 나갔다.

철과 유리로 이뤄진 파빌리온. 근대건축의 출발점이다.

유리와 철의 건축

우리의 1850년대는 그렇게 오래된 과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멀게 느껴진다. 사실 경복궁의 중건(1865)도 그즈음의 일일 뿐이다. 경복궁이 중건되던 해에 미국에서는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었다. 조선 정부는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 뉴스가 유럽에 알려진 것도 1주일 후였다고 한다. 아마 당시 뉴스는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접한 동양 여러 나라(중국, 일본 등)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바닷길로 유럽, 미국과 대하고 있었다. 처음 그것은 모든 과거의 것(건축)들을 압도해 버릴 것처럼 이 땅에 스며들어 왔다. 아울러 그 자랑스러운 상투(유산)가 잘리는 것과 같은 마음의 상처(정신)도 함께 받게 되었다. 개화된 신문명의 사람들은 상투를 버리고 양복을 입게 되었다. 또한 'm'와 'kg'을 사용하게 되었다.

서양건축이란 것에도 처음 눈을 뜨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풍토의 마음'은 그것에 완전히 용해돼버리지 않고 있다. 이 땅의 전통적인 관습이나 기술은 쉽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이 글제는 1800년대의 한 후반기(1851-1900)에 엑스포를 통한 서양 건축의 첫 만남을 살펴보고 우리 다음 엑스포에 대응하는데 그 뜻을 둔 것이다. 우리는 그 테마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사실 19세기 초만큼 서양의 과학과 산업문명이 동양에 물밀듯한 충격을 준 때는 일찍이 없었다. 과학은 종교와 철학에 대신하는 희망과 행복의 열쇠라고까지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인간은 기술의 힘으로 자연도 정복할 것처럼 행세하곤 했었다.

유럽 최초의 증기 기관차(1821, 영국 Stephenson)는 커다란 정거장(停車場)을 요구하게 되었고 도시는 그에 따라 확장되었다. 역전(앞)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바로크식 큰길(大路)로 뚫렸다. 빈부를 막론하고 빅토리아시대[4]의 모든 사람들은 '진보'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이 19세기의 신념이기도 했다. 그들도 과학에 대해 신앙심에 가까운 존경을 바쳤다. 박학만능(博學萬能), 과학과 물질의 진보, 평화와 산업을 신봉하고 있던 이 시대의 특질은 '박람회' 즉 '엑스포(EXPO)'로 표출되어 나왔다. 진보의 시위(Demonstration)로, 빅토리아시대의 상징으로, <수정궁>은 세워지게 된 것이다.

첫 엑스포 테마, 진보!

1851년 대박람회[5]는 <수정궁(水晶宮, The Crystal Palace)>으로 예시(豫示)된 듯 나타났다. 영국의 눈부신 건축물 축조 기술을 보여 주는 웅장한 규모, 민중의 열광과 선거법 개정 후에 찾아온 평화스러운 분위기들이 이 박람회장에 나타났다. 이것을 구경하러 1851년 5월 1일 런던(倫敦) 하이드 파크(Hyde Park)로 밀려온 모든 식민지 사람들은 경이와 충격을 받았다. 구노의 <아베마리아>도 이때 처음 울려 퍼져 나왔다.

4) 빅토리아시대(1837-1901)는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한 1837년부터 1901년 여왕의 서거 때까지 64년간을 말한다. 19세기 대영제국의 번영하던 시대를 말하기도 한다.(일본, 《태양》, 1995년 414호, 130쪽)
5) 세계 최초의 만국박람회는 1756년 런던에서 열린 바 있는데 영국예술가협회(Art of Society) 주관이었다.

1851년 5월 1일의 수정궁 내부. 볼트가 유리로 되어 있다. 수정(水晶)으로 만들어진 분수, 쏟아지는 빛이 홀에 퍼진다.

전시회는 런던의 모든 시민들이 7만 5천 파운드의 기부금을 냄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도 지금 이런 건물을 충분히 세울 수 있겠는데 기부금을 낼 수 있을는지....
전시는 23주간에 걸쳐 열렸다. 관객은 600만 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질을 찾아내기도 했다.

· 실내 수세식 변소
· 붙박이 욕조
· 조리용 가스레인지
· 냉장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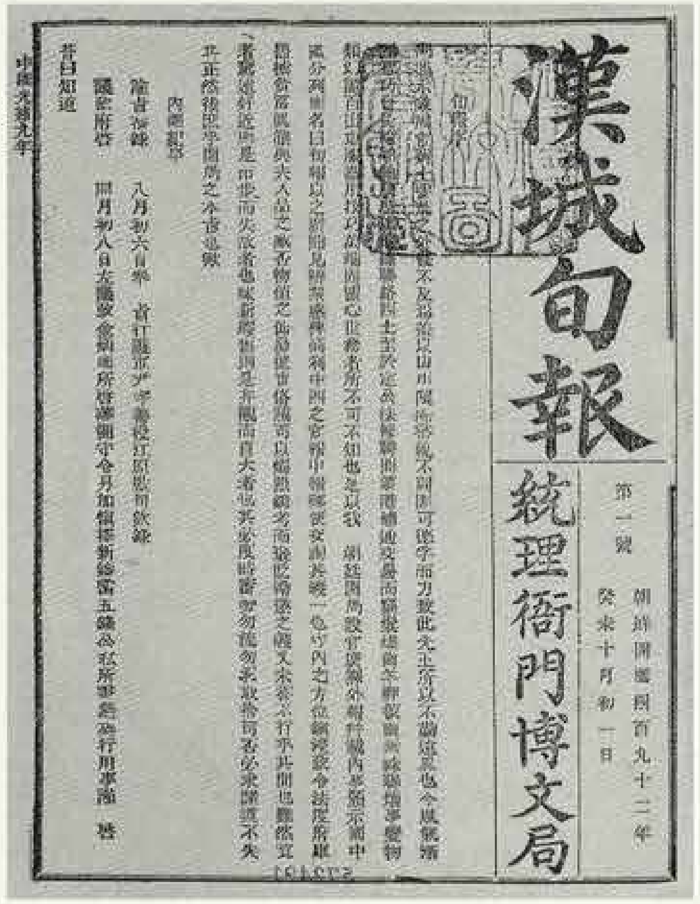
전시된 목들은 주거 환경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들이었다. 1850년대 접점에 메인 전시장, 수정궁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 새로운 엑스포를 준비하며 우리는 무엇을, 어떤 건물을 세워야 하나.... 우주 시대의 구축물.... 우리 전통 건축물.... 두 가지를 융합하면 좋을 것 같다.

한성순보의 수정궁 기사

그 시대, 우리는 철종(哲宗) 2년으로 세계를 모르고 은둔하고만 있었던 것이다. 서구(西歐)의 건축사는 수정궁을 출발점으로 하여 새로운 장(章)을 한참 꾸며 나가고 있는데도-. 그 수정궁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첫 소개(대중매체를 통한)는 박람회 종료 후 한 세대가 지난 1883년에야 이루어졌다. 그 기사는 《한성순보(漢城旬報)》(1884.6.12)에서였다.[6]

먼저 한성순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1883년 10월 31일 창간된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었다.[7] 한성순보는 통리아문 박문국(博文局)에서 발행되었다. 박문국은 1883년 7월 개국되었다. 같은 해 1월 치도국(治道局), 전환국(典圜局), 5월 기기국(機器局)이 개국되었다. 우정총국(郵政總局)은 이듬해인 1884년 3월 개국된다.

6) 일본의 수정궁 뉴스는 1861년 12월 일본 최초의 신문이었던 '관판(官板) 바타비아 신문' 창간호에 실렸다. 박람회 후 10년이 지난 뒤였다. 우리는 그보다 20년이 더 뒤진 것이다.
7) 관보형식의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 박문국에서 월 3회 발간한 순보. 크게 국내 기사와 국제 기사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관청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구독할 수 있었다. 1884년 폐간되었다. 漢城週報는 그 후신으로 1886년 1월 25일 재창간 하였고 1888년에 폐간되었다(박문국 발행).


漢城旬報

統理衙門博文局

第一號 朝鮮開國四百九十二年 癸未十月初一日

한성순보 창간호

漢城旬報

博文局

第七號

朝鮮開國四百九十二年癸未十二月初一日

中國光緒九年

國內官報

한성순보 7호

1883년 10월 1일 저동[8] 박문국에서 발행했다. 박영효가 한성판윤일 때였다. 그는 한성부에 신문국을 만들고 이 일을 주도했다. 주자소(鑄字所)도 한성에 세웠다. 박문국은 1884년 12월 수구파의 습격으로 불탔다. 한성순보는 폐간되었다.

우리는 이때는 작은 규모니마 서양 여러 나라와 접촉하고 있었으나 아직 세계정세에 어두운 때였다. 개화와 계몽을 위해 한성순보도 창간되었고 태서(泰西) 여러 나라의 정세와 문물, 제도 기타 여러 과학지식들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중 「각국근사(各國近事)」라는 난에 실린 한 보도기사가 『수정궁』이었다.

나는 이 전문을 다시 소개하려 한다(原文은 漢文, 번역판도 나와 있다). 건축적 주석(註譯)을 함께 단다.

한성신보사 사옥이다. 단층 건물이다. 현관에 계단을 두어 건물을 들어 올렸다. 번사창, 배재학당 다 비슷하다. 사옥은 벽돌조에 아치 현관을 갖고 있다. 창문 상인방은 편평아치로 했다. 키스톤(宗石)을 두고 약간 접는 형식이다. 창문은 크레센트와 도르래가 달린 '내리 올리기' 창틀로 했다.

영국 수정궁(英國水晶宮) :
영국 수도에서 40리 되는 곳에 수정궁(水晶宮)이 있는데 수십 년 전에 관(官)에서 파견한 팩스턴(伯爵 博四沺)이 세운 것이다.

철과 유리로 된 수정궁은 그 자체가 전시품이었다. 파상(波狀)으로 기복을 이룬 지붕 모양은 긴박감과 단순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주었다. 유리가 주는 느낌은 투명성, 비물질성 그리고 무한성에 대한 기대를 주는 것이었다. 1850년 3월 영국 『하원 건설위원회의』는 박람회용 건물을 설계 현상키로 했다. 그때 모집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 가건물일 것
· 자재비와 인건비가 많지 않을 것
. 준비가 간단하고 신속히 세울 것
. 해체, 확장이 간단할 것
. 천정에 빛이 들어오게 할 것
. 내화성이 있고 넓이는 7만m²일 것
. 건물의 대부분은 단층일 것

등 7가지였다.
4월에 마감했을 때 응모작은 245 작품이었다. 그러나 당선작은 없었다(Richard Turner도 낙선했다). 건설위원회는(1850.6.7) 조셉 팍스톤(Joseph Paxton, 1803-65)에게 설계를 위촉했다. 그는 8일 만에 설계안을 마련해 냈다. 위원회는 이 안을 승인했다(1850.7.26).

조원가이며 설계자인 조셉 팍스톤은 농부의 아들이었다. 1826년 이래 드본셔(Devonshire)공작의 정원 관리인으로 근무한 인연으로 고급관리 헨리 콜(Henry Cole), 왕자 앨버트 공[9]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수정궁의 추진 리더 그룹이다. 팍스톤은 수정궁의 설계로 그 후 작위(Knight)를 받게 되었고 하원 의원도 되었다.

우리 건축가, 디자이너는 이런 대접을 받은 사람이 없다. 김수근, 김중업, 한도룡 등은 외국에서 개최된 엑스포 한국관을 위해 그토록 노력했으나 다 잊혀졌다. 그런데도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을까?

수정궁을 세운 조셉 팍스톤. 시든햄 이축 장소에 동상으로 남아 있다

...기둥은 철주(鐵柱)로 하였고, 상하(上下)사방(四方)을 모두 유리로 장식해 멀리서 바라보면 빛깔이 휘황찬란해서 사람의 눈과 마음을 현란시키기 때문에 이름을 수정궁이라 하였다...

수정궁이란 이름은 《펀치(Punch)》지가 지었다. 진입 부분 중앙에 수정으로 되어 있는 분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국의 어떤 시인은 '세계의 불가사의한 집'이라고 읊었다. 《일러스트레이트 런던뉴스(Illustrated London News)》(1851.5.1)는 수정궁의 삽화를 실었다. 그 그림을 보면 수정궁 뒤편에 템스강이 흐르고 동쪽 보그솔 다리, 서쪽에 바타시 다리가 있다. 수정궁 바로 뒤에는 나이츠 브리지 기병대 막사, 훨씬 뒤쪽에 하이드 파크 코너가 보인다. 주변에 트리니트 교회, 피터즈 교회, 세인트 루크스 교회도 보인다.[10]

수정궁은 유리 생산량의 1/3에 해당되는 판유리 30만 장(400t)을 사용하였다. 벽과 지붕까지도 유리로 시도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돌의 건축』이란 과거의 이름들은 이로써 불식되었다. 3,300개의 속이 빈 주철(鑄鐵)기둥을 떡 주무르듯 조립하여 그 새로운 심미성을 표출해 냈다. 『유리와 철의 건축』시대는 시작되었다.

...그 가운데 정원과 건물이 10여 리를 차지해 있고 그 궁고지(宮庫地)는 일자형(日字形)이고 전면은 고우(高宇), 사우(土宇)의 형상이고 길이는 약 160 장(丈) 쯤이고 너비는 30여장이다. 한 중앙은 16장 8척(尺)이며 좌우는 10장 5척이다. 그 다음은 6장 2척에서 2장 2척까지 낮아진다....

약 10만m²의 공원 푸른 잔디 위에 약 69,500m²(21,000평)의 건축면적(C=892,000m²)을 갖고 세워지게 된 수정궁은 어쩔 수 없이 하이드파크의 우람한 느릅나무들을 잘라내야 했다. 그러나 팍스톤은 느릅나무를 보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것을 웅대한 둥근 볼트(Vault) 지붕의 메인 트란셉트(Main Transepts)를 건물에 덧붙임으로써 해결하였다. 이축대칭(二袖對稱)의 형태는 자연히 도출되었다. 부분적으로는 중 2층(中 2層)의 높이를 갖게 되었다.
파빌리온은 프리 파브(Pre-fab, 현장조립)된 주철과 연철의 부재 약 25만 개를 사용하여 2.4m의 모듈로 연결시켰다. 그 내부공간은 긴 중앙복도로 유도했다. 대통로라 불린 그 규모는 21.6m(폭) × 19.8m(높이)였다. 이것과 교차하는 둥근 천정(볼트)의 통로는 21.6m(폭) × 32.4m(높이)나 되었다. 전체적으로는 122m(폭) × 554m(길이)의 내부공간이 만들어졌다.
전시장은 아침저녁으로 햇살이 스며들어 왔고 칸막이 없이 이어진 내부공간은 놀라움 자체였다. 무엇보다 건축의 내.외부를 하나로 묶은 탁월한 기법은 현대적 공간연출의 효시가 되었다.

8) 중부 경행방(慶幸坊) 교동(校洞) 혹은 현 중구 을지로 2가 168번지였다고 하기도 한다. 옛 중앙극장 전면 도로에 해당한다.

9) 앨버트(Albert) 왕세자는 건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박람회의 전시용 "집세가 싼 노동자용 아파트(Apt)"도 계획한 바 있다. 대단위 아파트의 시작이었다.
10) 필자가 1984년 여름 하이드 파크를 찾았을 때 수정궁의 어떤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다. 다만 Victoria 시대를 말해 주는 철도역(Crystal Palace Station)만 우중충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누대(樓臺) 전면에는 양금(洋琴)과 양화(洋畵) 및 관상품을 진열해 놓고 팔며 그 뒷줄에는 명인(名人)들의 유화(油畵), 수채화(水彩畵) 1,200여 점을 진열해 놓았다. 누대 아래 한 중앙에는 하나의 음악실을 설치해서 위에는 큰 풍금 하나를 놓았는데 높이가 2장 9척이며 사면에는 철통(鐵筒) 수십 개가 둘러 있는데 모두 한 자씩은 된다. 한 사람이 그 풍금을 타면 그 소리가 크고 맑아서 만일 순풍(順風)이라도 불으면 100리 밖까지 다 들린다.
그 좌우에는 각종 악기를 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넓이가 수백 명은 앉을 만하다. 그 아래에는 등의자 1,000여 개가 놓여 있으니 이는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자리이며 그 맞은 편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별로 넓지 않다.
뒷줄에는 새로 만든 양차(洋車) 몇 량(輛)이 있고 좌우에는 애급국(埃及國, Egypt), 락마(洛馬, Rome), 회회국(回回國, 이슬람국), 토이기(土耳其, Turkey 현재는 튀르키예), 의태리(意太利, Italy) 등 각국의 왕궁(王宮), 묘우(廟宇)를 본떴는데 비록 전체는 구비되었으나 조금 작고 생김새는 극히 공교롭다. 그것들은 혹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혹은 돌로 만들었는데 매우 치밀하니 다시 제작한 것도 있다.
그 이집트 묘우 안에는 그들 선성(先聖), 생현(生賢)의 상(象)이 있는데 어떤 것은 짐승 몸뚱이에 사람 얼굴을 하고 나는 형상을 한 것도 있는데 모두 몸뚱이는 붉고 머리는 검으며 쌍꺼풀 진 눈에 긴 입술이다. 벽에 종횡으로 새긴 그림은 칼로 조각한 듯한데 제비 형상도 있고 고양이 형상도 있으며 다른 방의 것은 모양이 같지 않아 신기하기 이를 데 없다. 또 물고기 기르는 연못과 새 기르는 곳과 가수(假獸), 꽃들이며 4,5백년 전 영국 사람의 형상을 한 석두(石頭) 및 수채화 등이 있다.
오른쪽에는 법랑서(法郞西, France)와 영국의 완호물(玩好物)을 진열해 팔고 있다. 앞에는 고목 한 그루가 있는데 높이가 7장 남짓하고 둘레는 10아름이 넘고 땅 위에 솟은 형상이 마치 홀(笏)을 꽂아 놓은 듯하다. 그 뒤에는 야인상(野人象) 3-4종이 있는데 흑인으로 머리를 풀어헤친 것도 있고 아랫 입술에다 크기가 10전 짜리 동전만한 납덩어리를 걸고 있는 것도 있으며, 깃털을 꽂고 있는 것도 있고, 나무 연장을 들고 호랑이를 잡는 형상도 있고, 서로 전투를 하는 형상도 있는데 이는 모두 가산(假山)의 작은 시내 숲 사이에 있다. 또 아주 큰 서방(書房)과 반청(飯鯖)이 연못 가운데 있고 전후로 석상이 두 줄로 있다. 그 석상은 말을 타고 짐승과 싸우는 형상도 있다...

매우 상세하게 쓰고 있다. 당시 세계사가 펼쳐진다. 이어-

...정문을 나서면 흰 돌을 깐 길이가 1,576보(步), 너비가 48보이다. 좌우에 돌난간이 있고 이 밖에 한(漢)의 백옥석(白玉石)으로 만든 석상 26개가 좌주(坐主)하고 있는데 다 서로 틀리다. 아래에는 정원이 하나 있으니 이름이 의대리원(意大里園, Italy의 庭園)이다. 길이는 약 266장인데 사방에는 산수와 수목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큰 연못이 자리하고 있다. 왼쪽에는 산등성이인데 꽃과 나무가 아름답게 우거졌다. 가까이서 바라보아도 참으로 한 점의 티끌도 보이지 않는다. 또 쇠로 만든 둥근 화가(花架)가 있는데 높이는 약 3장 2척으로 모두 120주(柱)이다.
사면에 문이 12개 있어 각 문마다 너비가 16-18척은 되며 각색 아름다운 꽃이 굽이굽이 피어 있다.
다시 중간쯤 가면 8각(角)으로 된 취화정(翠花亭)이 나오며 또 각 수선묘(水仙廟)가 있어 높이는 모두 6장 남짓한데 가운데는 통하고 겉은 철을 주조하여 표면을 오색으로 칠했다. 누각의 좌우에 철로 전심루(轉心樓)를 만들었는데 수법(水法)을 이용해 물을 대는데 그것은 원형으로 꼭대기 크기가 마치 절반(折盤)과 같고 높이는 28장 1척으로 모두 10층, 상하가 800보이다. 그 제일 꼭대기에는 천리안(千里眼, 望遠鏡)이 있는데 사면을 바라보면 수정궁 정원 전체가 다 보인다...

이 비교적 긴 기사는 기자가 수정궁 박람회 전시장 내외 풍경(風景), 광경(光景)을 둘러보고 기록한 것이다.[11]
이 기사는 '크나큰 기대', '눈부신 박람회', '찬란한 개회식', '회장에 전시된 과거와 미래', '풍요한 대영제국의 부', '대영제국의 우아한 건물들', '온 세계의 생산품'이란 캡션(Caption)으로 압축될 수 있었다.

...이 궁전은 본국의 부자들이 돈을 모아 세우고 관(官)에서 조직하였고, 관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관리하는데 수입은 관에서 차지한다. 모든 외국관에서 만든 화원(花園), 그림, 서방각(西方閣)은 국민들이 유람하는 것을 허락하고 구경하려면 얼마씩 돈을 낸다. 수년 후에는 그 본전이 회수되고 이자가 본전을 넘어설 뿐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즐거움을 함께 하여 아름다운 소문이 멀리까지 들리니 참으로 좋은 일이다. 또 들건대 이 궁전은 원래 집화창(集貨廠)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그 공사를 화려하게 하여 수정궁을 수리하여 더욱 교묘하게 해 국민들의 유람처로 제공해서 더 많은 이익을 본 것이라 한다...

수정궁과 국가 이익 관계는 오늘날 세계 각국의 박람회 유치작업, 예를 들면 엑스포(EXPO, Exposition Universelle 1855, Paris 국제박람회가 기원) 등과도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박람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기록상으로는 1907년의 <경성박람회(京城博覽會)>가 시초가 된다. 이 전시회는 불행히도 일본 통감부(統監府)가 조선 침략의 한 수단으로 벌인 잔치였다. 물론 국제박람회 성격도 아니었다.

수정궁은 찰스 폭스(Charles Fox, Railway Engineer)에 의하여 시공되었다. 공사는 약 17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팍스톤은 그를 통해 철로(鐵路) 시스템처럼 철저한 공업 생산부품(highly kit of parts)과 같이 이를 현장에서 조립해 낸 것이다. 이와 같은 폭스의 의도(Systematic Approach) 때문에 구조물은 해체되어야 했고 그것은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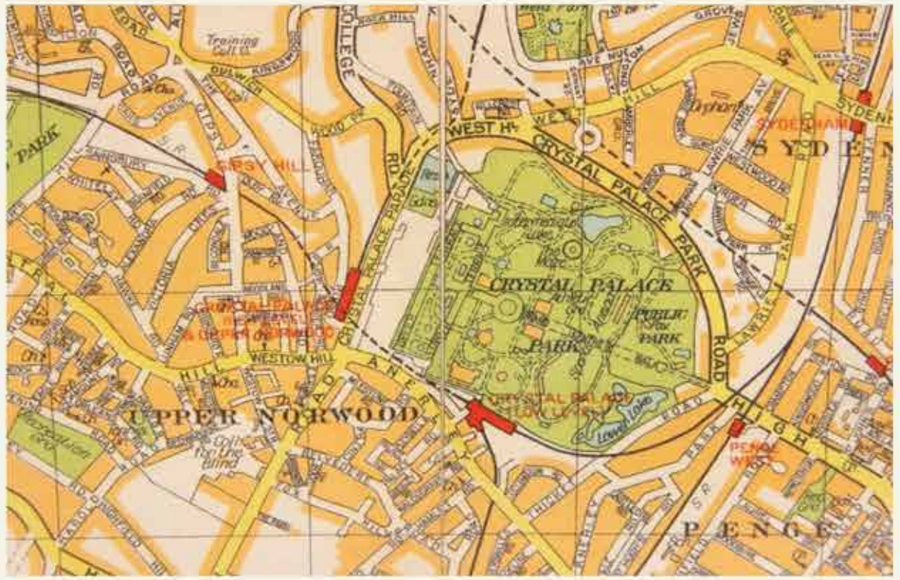
11) 이 전시회 때의 출품작들은 오늘날 빅토리아 앨버트(Victoria and Albert Museum)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런던의 다른 어떤 것보다 수정궁 보기를 우선했다. 동시대 언론인들은 그곳이 런던의 가장 세계주의적인 지역이었으며 미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러시아인, 인도인 뿐 아니라 중국인과 일본인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수정궁에 관한 흥미롭고 통찰력 있는 묘사는 독일인에 의해 쓰여졌다. 건축가 로타 부처는 1851년 수정궁이 관객들에게 남긴 인상은 런던 도시 밖의 낭만적 아름다움이었다고 했다.

수정궁에 찬성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러스킨이 특히 반대측에 섰는데 '건축에 대한 우화이며 문명에 대한 정면 공격'이라고 했다. 부르조아 계급은 박람회를 즐겼지만 그런류의 건물은 거부하였고 클래식(아서왕식)의 철도역과 헬리니즘은행의 건축물로 돌아갔다.
한참 뒤 영국인 에베네저 하워드(E. Howard)도 수정궁을 말한다. 하워드는『내일의 전원도시』(1898년 1902년 개정)에서 영국 건축가, 도시계획가 그리고 개발업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

수정궁 그 후

박람회가 끝난 후 수정궁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이드 파크에서 해체되었다(1852-54). 수정궁은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박람회가 종료되고 3개월 이내에 해체되었다. 수정궁은 1854년 하이드 파크에서 철거된 후 런던을 반쯤 가로질러 남부 시든햄(Sydenham) 언덕 남쪽 경사면에 이축된다. 최초의 대규모 건축물 이축 사례가 된다. 그리고 이 이축 수정궁은 1936년 말까지 각종 모임, 미술, 과학 관계의 전시, 음악 콘서트, 식사 장소로서의 기능을 했다. 대중들은 박람회가 끝난 한참 뒤 그곳을 가족 나들이터, 아이들 놀이터, 낭만적 만남과 약속의 장소로 받아들였다.



런던 중심부의 하이드 파크(Hyde Park)에서 런던남쪽 외곽의 시든햄(Syddenham)으로 옮겨갔다. 해체, 재조립 과정을 밟았다

이축된 수정궁을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Dostoyevsky, 1821-81)가 방문한 적이 있다. 그가 40대 때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할 때였다. 그는 1864년에 출간한 「지하생활자 수기」에서 주인공 체르니셉스키를 통해 수정궁 방문기를 다룬다. 체르니셉스키는 1859년 짧은 런던 체류 시 멀리서 수정궁을 얼핏 본 적이 있었는데.... 그의 소설의 여주인공인 베라 파블로프나의 꿈같은 삶에서 신비스러운 비전처럼 등장한다. 체르니셉스키와 그의 '새로운 인간'이란 선구자들에게 있어서 수정궁은 현대성으로 위대한 역사적인 도약을 하게 되면 러시아인들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의 자유와 행복의 상징이었다.
영국인들은 수정궁은 화가 터너의 후기 그림 같이 느껴진다고 한다. 자연과 산업을 혼합하는 터너의 <비 증기와 속도>(1884)를 시사해 준다고 한다.
그러나 1936년 실화(失火)에 의해 수정궁은 끝내 소실되고(1936.11.30.) 1941년 9월 철거되었다. 불에 타지 않은 일부 석재들은 현장에 남아 있다. 기단부 석재석과 돌계단 유구이다.

시드햄의 수정궁이 화재로 잔해만 남았다.

나는 한국인으로서 장배하고 꽃 한 송이를 바쳤다. 그는 근대건축의 아버지이다.

우리 식물원의 현재

한편 수정궁의 형상은 세계 각국의 전시장, 온실 등에 한 패턴으로 재현되었다. 일본과 조선에도 이입되었다.

구한말 통감부는 순종을 위해 창경궁에 온실을 세웠다. 프랑스인 앙리 마르티네와 일본 황실 식물원의 책임자 후쿠하네(福羽逸人)는 대온실(680m²)과 돔(Dome)식 온실 2개를 계획했다.

일본의 경우는 신주쿠어원(新宿御苑)이 이곳과 비교된다. 그곳은 1879년 궁내성의 식물어원(植物御苑)이 되었고 1906년 앙리 마르티네와 후쿠하네가 설계하여 서양정원을 완성했다. 그리고는 황실용의 신주쿠어원이 된 것이다. 어원에서 나온 말이 우리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바꾼 연유가 된다. 앙리 마르티네와 후쿠하네도 이때 조선에 건너와 창경원의 온실을 만들고 서양식에 일본식이 가미된 '원(苑)으로' 바꿔 버렸던 것이다.

이 온실은 지금 창경궁에 남아 있다. 필자는 이 온실 수리 공사에 참여했다. 철물, 목재, 유리, 타일 등 건축자재와 하드웨어 하나 제대로 남은 것이 없었다. 모두 반신불수 상태였다. 이미 철거된 이웃 온실과 균형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주변 정비도 하루속히 재개해야 할 것이다.

글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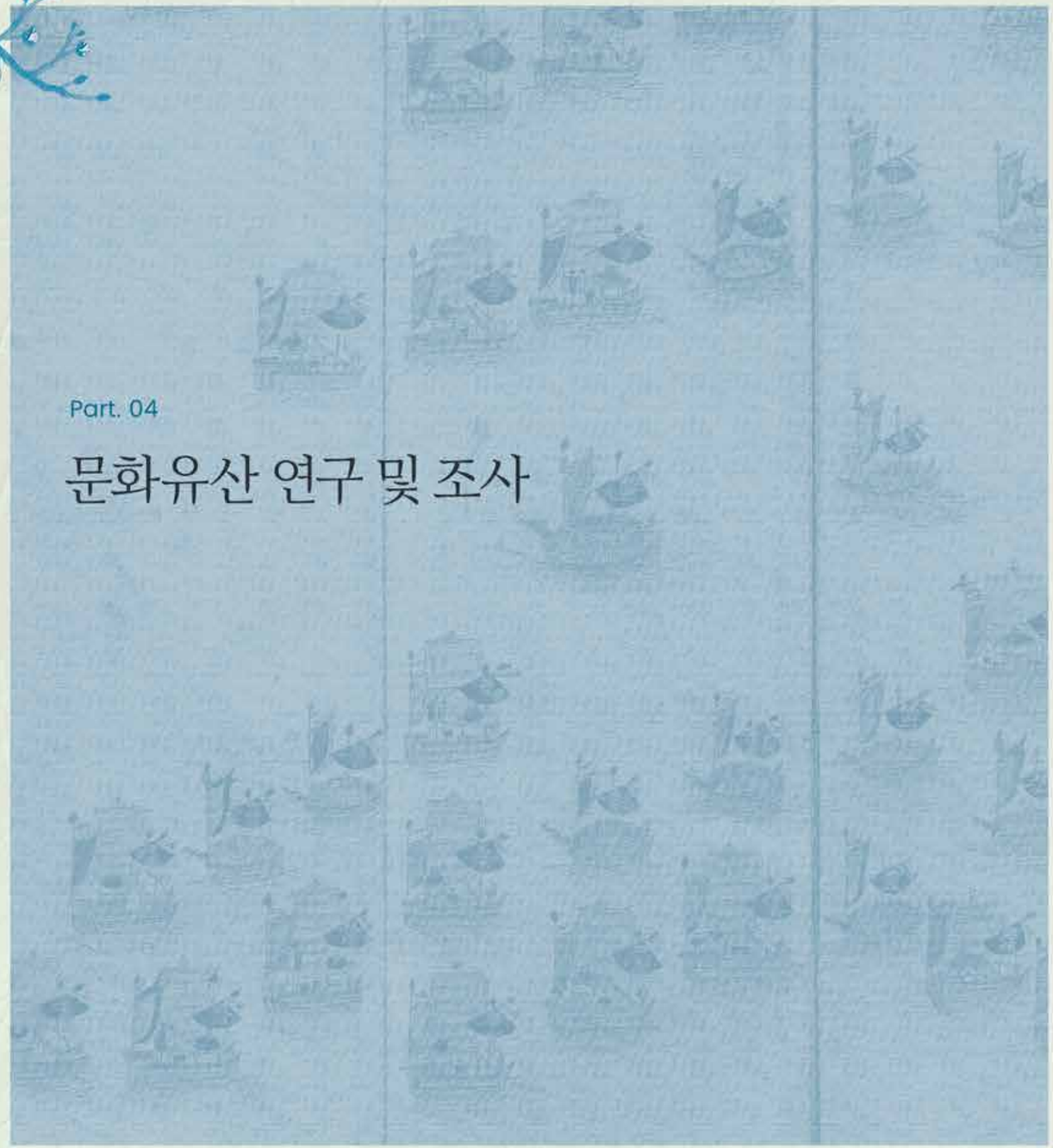
이 글제는 '한성순보'에 나타난 '수정궁'에 의미를 두었다. 사실 그 기사로 인하여 당시 조선인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건축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기록상으로나마 수정궁이란 근대건축의 한 정점(頂点)을 보도한 사실 자체를 확인함에 있어서만은 그 가치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1960년대 일본을 떠들썩하게 하던 메타볼리스트(Metabolist)들도 수정궁의 융통성과 비영속성에 매료돼(목적이 변함에 따라 넓어지고 좁아질 수 있는 건축) 있었던 것을 보면 그 영향은 적지 않은 것이다. 이 연구는 유럽 근대건축과 우리 근대건축이 어떤 인식 단계를 거치면서 이행(移行)되어 왔는가를 밝히려는 의도로 시도된 것이다. 필자는 두 번의 현장 방문을 통해 수정을 가해 왔다.

근대건축 사학자들은 지난 근대건축 시기 뉴욕의 브루클린 브리지와 파리의 에펠탑만이 수정궁에 필적할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다시 엑스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커지는 시점에 당시 상황을 다시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漢城旬報 影印本, 寬勳클럽 信永硏究基金, 1983
G. A. Document, Modern Architecture, 1851-1919,
Friebe, Buildings of the World Exhibitions, 1985, Edition Leipzig
졸고, 한성순보의 수정궁 기사를 다시 읽는다. 대한건축학회,《건축》, 1986.5



Part. 04

문화유산 연구 및 조사

조선시대 수군과 경상좌수영 수군 영·진의 성곽

영남성곽연구소 소장 | 나동욱

1. 조선시대의 수군

고대로부터 한반도 서남해안 일대를 괴롭히던 왜의 침구(侵寇)기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려시대 고종(1213~1259) 때부터이다. 특히, 공민왕(1351~1374)과 우왕대(1374~1388)에 들어와 경상, 전라, 양광도(경기도 양주와 광주일대)에 왜구의 침화가 가장 심하였다. 조선 초기에도 왜구의 침탈은 계속되었는데, 그 중 태조 5년(1396)에는 왜선 120척이 경상도 연해지역을 침략해서 수군만호를 전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래현 · 기장현 · 동평현 · 김해읍성 등 부산을 비롯한 동남해안의 읍성들까지 함락시켰다. 이에 따라 태조 6년(1397) 5월에는 부산포를 비롯한 15개소의 진이 설치되었는데[1], 각 도의 병마도절제사 아래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두어 부근 군·현의 병마를 통괄하게 하고, 해당 지방군이 간헐적인 소규모 왜적의 침탈을 막도록 하였다. 또한, 태조 7년(1398)에는 수군(水軍)이라는 병종과 관직을 설치하게 되었다. 고려 말 이래 육수군(陸守軍)과 구분하여 '배를 타는 군사'라는 뜻의 기선군(騎船軍)인 수군은 대부분 노를 젓기에 익숙한 도서민으로 충원되었다. 이들은 주로 해안 및 도서지역에 편제되어 왜구 격퇴에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조선 초기 기선군의 수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약 5만으로 비교적 큰 규모였으며 건국 초부터 매우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의 기선군은 수군도절제사에 의하여 통합되었다. 각 도별로 1인 혹은 2인의 수군절제사가 수영을 본거지로 하여 지휘책임을 맡았고, 다시 수어처(守禦處)별로 첨사, 만호 등을 지휘관으로 하는 포(浦)가 있어서 기선군이 배치되었다. 태종대 이후 지방군 편제는 영진군을 바탕[2]으로, 세조 3년(1457)에는 독진을 폐지하고 수군은 육군과 함께 진관체제(鎭管體制)로 바뀌어 성종 7년(1476)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완성과 함께 완전히 정착되었다.

경상도 수군에는 3명의 절도사가 임명되었는데, 경상좌도와 우도에 각기 1명씩의 전임수군절도사가, 그리고 나머지 1명은 경상도관찰사가 겸임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수군만호가 파견된 수군만호진은 경상좌도에 11곳, 우도에 8곳으로 하삼도에 설치된 39개소의 수군만호진 가운데 경상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경국대전』에 의하면 경상좌도에는 부산포 진관과 그 휘하에 다대포, 해운포, 두모포, 서생포, 염포, 포이포, 축산포, 칠포, 감포, 오포 등 수군만호가 지휘하는 10개의 진을, 경상우도에는 거제 가배량이 주진이 되고 제포에 첨절제사가, 그리고 그 휘하에 옥포, 조라포, 지세포, 평산포, 적량, 영등포, 사량, 당포, 안골포진 등이 설치되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경상좌수영의 경우 『세종실록지리지』에서 보이는 울산 개운포영이 『경국대전』에서 보이지 않고, 흥해의 통양포가 칠포로 변경되는 등 만호영의 변화가 있었음을 추정하여 볼 수 있다.

한편, 당시 수군의 임무는 장재선상(長在船上)으로 수상에서 근무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처하는 것이나, 성종 때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제포의 설보(設堡)가 논의 되었다.[3] 당초 각 포에 설진하고 성보를 쌓지 않은 것은 병기와 양향(糧鄕, 군대의 양식)을 모두 가지고 수상에서 왜구를 막으라고 한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병기와 군량을 모두 선중에 실을 수 없고, 적이 급습해서 창고의 병량을 불사르거나 선상에서 패하여 물자들을 단번에 잃게 되면 장졸들이 갈 곳이 없어지므로 성보를 설치하여 원병을 기다리는 것이 낫다는 것이 제포(諸浦)에 축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따라서 왜구의 침입에 대비한 가장 적극적인 방어 전략으로서 읍성뿐만 아니라 남해안 진보(鎭堡)가 적극적으로 축조되었다.

성종 13년(1482)에 영의정 홍응(洪應)을 축성사로 보내어 경상도 연해 설보처(設堡處)를 순심케 하였다. 성종 16년(1485) 3월경에는 심정을 완료하고 경상좌수영의 다대포, 부산포, 염포와 경상우수영 관내 조라포, 지세포, 옥포, 영등포, 제포 등 16개처에 대하여 그 결과를 자세히 계문하였다.[4]

1) 『태조실록』 태조 6년, 5월 임신조
2) 金在瑾, 1994, 『韓國의 城』, 서울대학교출판부, p.309의 표를 인용.
3) 車勇杰, 1975, 「朝鮮 成宗代 海防築城論議와 그 樣相」, 『白山學報』, 19, p247.
4) 『성종실록』 16년 3월 병오.

또한, 성종 15년(1484)에는 연해 포소에 병기와 육물을 보관하기 위한 목책을 설치하고 토담이나 석보로 쌓은 성보(城堡)가 설치되었다. 성종 20년(1489) 2월에는 축성함에 있어 포백척의 사용과 높이 15척을 기준으로 축성 후 5년 내에 퇴락하면 감축자(監築者)를 파출하기로 하였다.[5] 성종 21년(1490)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진성이 축조되었다.

성종 16년(1485)-성종 22년(1491) 사이 수군의 영진에도 성보를 쌓는 1차적인 조치(표 1 참조)에 의하여 남해안에 왜의 침입이 있으면 우선 선상에서 방어하다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성보로 입보농성하면서 육군의 영진에 응원을 요청토록 방어체계가 변화되었다.[6]

	진관(鎭管)	진명(鎭名)	성종 16년 심정(審定)		둘레(尺)	높이(尺)	정/지/거(井/池/渠)
			좌향(坐向)	주회(周回)			
경상좌수영	부산포진관	좌수영			9,190	13	3/1/0
		부산포			2,026	13	
		두모포			1,250	10	
		감포			736	13	4/0/0
		해운포			1,036	13	0/1/0
		칠포			1,153	9	2/0/0
		포이포					
		오포					
		서생포					
		다대포	남	1,298	1,806	13	1/0/0
		염포			1,039	13	
		축산포					

표 1. 조선 전기 경상좌수영지역 수군진성 축조 현황

성종대의 1차적인 수군 영·진에 성보를 축조함에 이어서 중종대에는 삼포왜란을 계기로 수륙군의 합방조처와 함께 수군 영·진에 성보축조가 계속 추진되었다. 중종 17년(1522)까지는 남해안뿐만 아니라 서해안과 동해안의 수군 영·진도 성보를 가지게 되었다. 수군 영·진에 축조된 성보들은 대개 바다가 낀 방어가 용이한 위치에 있었으며, 병선의 박립처(船立處)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축성위치가 설정되었다. 성보의 입지조건은 해안을 낀 산지나 구릉이 대부분이며 만곡된 포구를 동반하여 풍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곳이 선택되었다.

조선 초 경상좌수영에 관한 첫 기록은 태종 13년(1413)에 "경상수군절제사를 좌·우도로 분치하여 김문발, 김을우로서 이를 삼았으며, 경상좌도수군도안무처치사본영(慶尙左道水軍都按撫處置使本營)을 부산포에 설치"한 기록[7]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경상좌수영은 본래 동래현 부산포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8] 그러나 부산포가 왜선의 초입처로서[9] 주장이 왜인과 혼재하고 있어 주장의 거처로는 마땅하지 않다는 이유로 세조 5년(1459년) 울산 개운포로 옮겨졌다.[10] 경상좌수영이 울산 개운포로 옮겨진 이후 울산은 병영과 수영이 함께 설치되어 지휘체계가 애매해지고, 또 거주민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경상좌수영을 부산포나 다대포로 다시 이설하는 문제가 세조 6년(1460) 이전부터 수차례 논의되었다.

5) 『성종실록』 20년 2월 임진.
6) 車勇杰, 1988.8, 『高麗末朝鮮 前期 對倭 關防史 硏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7) 『태종실록』 13년 4월 을묘.
8) 『성종실록』 24년 10월 임오.
9) 『중종실록』 6년 2월 계유
10) 『세조실록』 5년(1459) 1월 계묘, 『성종실록』 8년(1479) 2월 기유, 『성종실록』 24년(1493) 10월 임오, 『중종실록』 6년(1511) 2월 계묘,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울산군 관방조, 「…左道水軍節度使營 在開雲浦 自東萊釜山浦移于此…」.

경상좌수영이 부산지역으로 이설된 시기에 대하여 『동래영지』, 『영남영지』, 『여지도서』등에서는 언제인지 모른다고 하였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11], 『증보문헌비고』의 기록과 『울산읍지』, 『징비록』, 『대동지지』 등을 근거로 선조 25년(1592)에 이르러 동래 해운포(남촌)로 옮겨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의 문헌조사[12]를 통하여 중종 29년(1534) 9월 29일에서 중종 39년(1544) 9월 26일 사이 어느 시기에 이설된 것으로 보고 있다.[13] 여기에서 해운포는 『징비록』에서 말하는 구영성(舊營城)인 해운포영성을 말하는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현의 동쪽 9리에 있으며 정덕 갑오년(1514)에 처음 쌓기 시작하였고, 둘레 1,036척, 높이 13척, 성안에 연못 1곳이 있다'고 하였다. 경상좌수영의 수군진은 낙동강 이동지역의 왜구의 침입로에 해당하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하여 설진하였고, 때에 따라 이진하기도 하였다.

한편, 중종 5년(1510)의 삼포왜란과 중종 39년(1544)에 일어난 사량진왜변을 계기로 경상좌도는 부산포진관을 중심으로, 경상우도는 제포대신 미조항진관과 가덕진관을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염포와 오포가 폐진되었다.[14] 부산포진관에는 서평포와 개운포가 신설되고, 서생포, 두모포, 포이포, 다대포가 속하게 되었다. 한편, 남해의 미조항진관과 더불어 가덕진관에는 천성포와 가배량이 신설되었고, 안골포, 옥포, 지세포가 배속되었다. 또한, 임진왜란 때인 선조 26년(1593)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였던 이순신이 초대 삼도수군통제로 임명되면서 호남과 부산 사이에 있는 관방(關防)의 요해처인 통영 두룡포(頭龍浦)[15]에 삼도수군의 총사령부인 통제영을 설치되어 수군의 지휘체계가 가시화 되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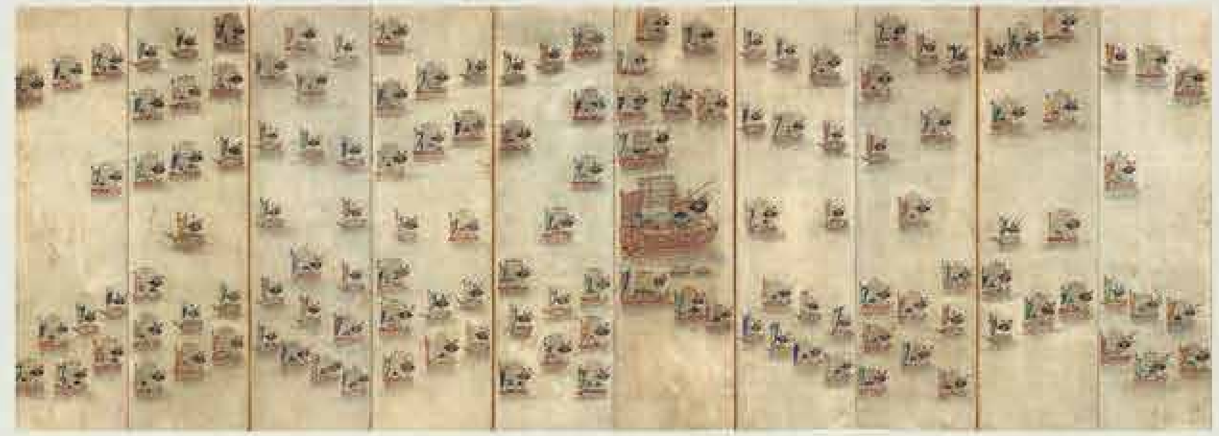


그림 1. 삼도수군합조도(三道水軍合操圖, 부산박물관 소장, 해진도 10곡 병풍)

임진왜란 이후, 해운포에 있던 좌수영은 선창이 입구가 좁고 모래가 쌓여 선로가 불통하므로 인조 14년(1636)에 감만이포(戡蠻夷浦)로 다시 이설[16]된다. 그러나 감만이포가 왜관과 수로로 10리도 안되어 군사기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어 주장이 머물 곳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하여, 감만포로 옮겨진 직후 곧 다대포로의 이설 또는 이진이 논의 되었다. 결국 효종 3년(1652)에 남촌구기(舊基) 즉, 오늘날 부산의 수영동으로 다시 옮겨왔다.

	경국대전 편제		삼포왜란(1510년) 및 사량진왜변(1544) 이후 편제 개편	
경상좌수영 (울산 개운포)	부산포진관	두모포, 감포, 해운포, 칠포, 포이포, 오포, 서생포, 다대포, 염포, 축산포	부산포진관	서생포, 두모포, 포이포, 다대포, 서평포(신설), 개운포(신설)
경상우수영 (거제 가배량)	제포진관	옥포, 평산포, 지세포, 영등포, 사량, 당포, 조라포, 적량, 안골포	미조항진관 (중종 17년)	평산포, 사량, 당포, 영등포, 적량
			가덕진관 (중종 39년)	안골포, 옥포, 지세포, 천성포(신설), 가배량(신설)

표 2. 경상좌·우도 수군진의 변화과정

11) 『新增東國輿地勝覽』, 「…舊在於蔚山開雲浦 宣祖二十五年 移設于東萊南村…」.
12) 박세은 외, 2018.5, 『개정·증보 조선시대 경상좌병영·좌수영 우후(虞候)와 울산지역 수군첨사(僉使)·만호(萬戶) 〈선생안(先生案)〉』.
13) 『중종실록』 29년 9월 임진조에는 부산포를 경상좌도의 수영으로 삼게 한다는 기사가 보이며, 『중종실록』 39년 9월 임술조를 보면 수영이 해운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중종실록』 39년 9월 갑인.
15) 『인조실록』 16년 1월 무진.
16) 『인조실록』 14년 2월條, 「移慶尙左水營于戡蠻 舊營無藏船之所 遇狂風則必致敗役 戡蠻地勢便好 防守得宜 亦無於舊營 慶尙監司金伯會 以此馳啓 朝廷從之」.

한편, 경상좌수영 소속의 축산포, 칠포, 감포, 포이포[17], 두모포를 동래부의 좌수영 인근으로 이설하여 영조 27년(1751)에 경주의 감포, 영해의 축산포, 홍해의 칠포를 혁파하게 되었다. 경상우도의 천성진과 가덕진의 경우 임진왜란 때 큰 피해를 입어, 난 후 웅천의 안골포 인근으로 이설되었다가 효종 7년(1656)에 옛 터로 돌아오게 되었다(표 2[18] 참조). 따라서 영조 26년(1750) 이후 좌수영 소속 3개 진보가 혁파되고 7진 체제가 확립되었다.[19] 1891년 5월에는 해로요충지로서 절영도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앞서의 개운진·서평진. 모리진 등을 없애고 부산 영도에 절영진을 신설함으로써 6진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고종 32년(1895) 7월에 군제개혁으로 좌수영은 여타의 속진과 함께 파진[20] 되기에 이르렀다.

2. 조선시대의 경상좌수영의 영·진의 성곽

조선시대 경상좌수영의 수군 영·진성은 경상북도 영해에서 기장 두모포진을 거쳐 경상좌수영과 부산포진, 다대포진를 잇는 동서축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왜선이 드나드는 길목에 설치되었다. 경상좌수영성과 조선전기 한때 경상좌수영이었던 울산 개운포영성의 경우를 비롯한 대부분의 진성들은 대체로 강이나 하천을 끼고 있는 해안포구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이는 복잡한 해안선을 이용한 경상우수영 소속 진성들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은 해안선의 안쪽 만곡된 포구 안쪽의 해안 산 사면에 자리 잡고 있어 바다 쪽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육지형에 속하며,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한다. 또한, 적의 출몰을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진성이 관할하는 봉수가 인근에 배치되어 중앙으로의 급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해안의 각 진에도 통보되는 조기경보체제가 구비되어 있었다.

그림 2. 조선전기 경상좌수영 이었던 울산 개운포영성의 입지(상단 중앙이 개운포영성)

한편, 수군진성의 방어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종 5년(1520) 5월 무인조에서와 같이 포구 입구에 수중목책을 설치하여 선박 및 인원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21]

17) 한국문물연구원, 2012, 『釜山 民樂洞 包伊鎭遺蹟』.
18) 부산광역시 강서구·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생산기술연구소, 2015, 『천성진성 복원정비계획』.
19) 『동래영지』 진보조, 『비변사등록』 순조 14년 2월 5일조 「左水營所管七鎭鎭」.
20) 『동래부음지(1895)』 진보조.
21) 『중종실록』 5년(1520) 5월 무인조 「鄭元帥緯順门状榮曰 …釜山浦多大滿兵船無餘 賊若復寇 則必如前焚蕩 須植大木 以繼鎭 次次聯接 橫截藏船滿口 又用葛大索 縣重石于木 使木沈水下一尺許 使賊船拘礙 不得踏入 且不得斫斷 又於聯木中央 置鐵鉤 或鎭或解 令鬪閉在我 我欲用船 則解鉤出去 庶合守船之策…」.

그림 3. 부산 경상좌수영성 평면도

그림 4. 부산 다대포진성 평면도

그림 5. 부산 경상좌수영성 서벽 토사 뒤채움

그림 6. 부산 경상좌수영성 서벽 토사 뒤채움

그림 7. 부산 경상좌수영성 홍예식 남문

그림 8. 울산 개운포영성 북문옹성

경상좌수영과 소속 진성의 평면 형태는 방형, 부정형, 오각형 등 여러 형태까지 존재하며(그림 3·4 참조), 대부분 해발 5~30m 전후의 낮은 구릉에 위치한다. 해안이나 평지에 가까울수록 직선형태 중 방형의 성곽이 조성되었다. 타원형이나 부정형은 지형적으로 해안이나 강 또는 하천에서 떨어져 있는 구릉을 포함하는 진성에서 곡선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에는 규모나 형태에 있어서 병영으로서의 형태가 정해져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지형을 적절히 이용하는 가운데서 생긴 자연스러운 형태로 수군진성 대부분이 산을 등진 은폐된 해안 포구 주변의 지형적인 요건에 의하여 평면형태가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규모는 경상좌수영성이 9,198척으로 가장 크며 조선전기 한때 수영이었던 개운포영성은 측량한 길이가 1,264m에 이르고 있어 경상좌수영성지 1,480m보다 작다. 조선전기 부산포진성이 2,026척, 다대포진성이 1,805척, 서평포진성이 1,689척, 조선전기 두모포진성이 1,250척, 칠포진성이 1,153척, 염포진성이 1,039척, 해운포영성이 1,036척, 감포가 736척 순이다. 조선 전기 수영이 있었던 개운포영성과 경상좌수영의 규모가 다른 진성에 비하여 월등히 크며 휘하 진성은 대부분 100척에서 2,000척 사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계가 높은 영성들이 상대적으로 성곽의 규모가 크며 만호진의 경우 지형에 따라 비슷한 규모에서 가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벽의 높이는 적게는 9척이며 대부분은 읍성과 같이 13척이다. 높이는 조선전기 영조척(30.8cm)을 적용할 경우 각각 2.7m, 4m, 포백척(46.7cm)을 적용할 경우 각각 4m, 6m 정도이다. 영·진성 가운데 잔존 성벽의 최대 높이로 볼 때 영조척의 13척인 4.2m 전 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벽은 기본적으로 생토면 정지-잡석지정-지대석의 배치-내외벽쌓기-외벽 면석 뒤 잡석채움 한 후 흙다짐으로 내탁하기 등의 공정을 거쳐 축조되었다. 성벽의 기저부는 대부분 생토면을 'ㄴ'자상으로 절개하여 정지하고, 그 상부에는 판상의 장대석을 눕혀 대형의 1-2단의 지대석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지대석 끝에서 안으로 20cm 정도 들여서 자연대석을 세우거나 눕혀 쌓아 기단석으로 삼았다. 그 상부로 외벽의 하단은 대형석, 상단은 점차 소형석으로 잔돌을 끼워가며 허튼층쌓기 하거나 줄눈흐트려쌓기 하였다. 내외벽 사이의 거리는 대체로 7m 전후이다. 한편, 대부분 면석 뒤로 할석제의 잡석을 채우는데, 계단상의 할석뒤채움이 확인되거나 외벽에서 일정 높이까지만 면석 안쪽에 잡석으로 채운 뒤 토사로 다진 내탁 형식의 성벽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체성의 석축이 3.5-4.3m 정도의 너비를 보이는 진성도 석축부 안쪽으로 3m 정도 경사지게 토사로 다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경상우수영 소속의 구조라성이나, 천성진성의 내벽에서 단상의 뒤채움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수군진성들은 계단식 내벽에서 점차 수직내벽 안쪽을 경사지게 내탁하는 읍성의 양상과는 다른 계단식의 전통이 조선 중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6 참조).

부속시설물의 경우 성문은 3개소가 대부분으로 경상좌수영성과 개운포영성, 다대포진성 등에서 4개소의 성문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영·진성은 위계가 높은 성곽으로 규모와 더불어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성문에는 반원형 편문 옹성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었다. 옹성은 주로 시계방향으로 설치하여 개구부는 성문 외측에서 보았을 때 옹성의 좌측으로 내었다. 성문에는 좌수영성 남문에서 홍예문이 확인되었을 뿐 나머지 진성에서는 대부분 개거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7·8 참조). 부속 시설물 중 치성의 설치 수는 경상좌수영성과 다대포진성이 6개소, 개운포영성이 3개소로 추정된다. 경상좌수영과 이웃하고 있는 가덕진성과 천성진성이 8개인 점을 비추어 보면 치성의 배치는 반드시 진성의 위계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방어시설의 강화와 같이 후대에 수축하거나 진성의 평면 형태, 자연지형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치의 축조수법은 체성벽과 동일하나 뒤채움을 전부 잡석으로 채우고 있는 점에서 체성의 축조수법 및 읍성의 치 축조수법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규모에 있어서는 좌수영성이 6m×6m, 개운포영성의 남서쪽 치가 6m×4.8m정도 규모이다. 대체로 읍성의 치가 6m~14.7m×4.2m~10.6m 규모인 점으로 보면, 수군진성은 읍성보다 규모가 작았음을 알 수 있다(그림 9·10 참조). 해자의 경우 성벽에서 대체로 5~10m 정도거리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건호(乾壕 또 황(隍))의 경우 개운포영성이나 다대포진성의 경우처럼 10~15m정도로 넓게 띄우는 경우도 있다. 해자의 양안에는 호안석축을 쌓아 해자의 유실을 방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너비는 대체로 4~4.5m에 이른다. 개운포영성의 건호 바깥쪽에서는 해자 굴착 시 나온 흙을 해자 외곽에 쌓아 해자의 효과를 증대시킨 것으로 보인다(그림 11·12 참조).

한편, 고지도를 통해 본 경상좌수영의 수군 영·진의 선창(船艙)은 대부분 방파제를 설치하거나 육지 쪽으로는 선박의 접안을 위한 호안석축을 둘렀다(그림 13 참조). 그리고 모든 선창에는 기본적으로 선박을 결박하는 계선주(繫船柱)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선소 인근에는 대부분 선소와 관련된 건물군의 상징적인 건물로 보이는 어변정(禦變亭) 등이 위치한다. 부산의 경상좌수영성을 그린 〈경상좌수영영지도형(慶尙左水營營址圖形)〉에서 포이진 남쪽 판곶리(板串里) 아래쪽에 '해문(海門)'이라 표기되어 있어(그림 14 참조) 중종 5년(1520) 5월 무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수영과 소속 진성 앞바다에도 "끝을 뾰족하게 한 나무를 박고 이를 쇠사슬로 연결하고 또한, 동아줄에 돌을 달아 그 나무를 수면 아래 한자쯤 되게 잠기게 하여 적선이 오지 못하게 하는" 수중목책이 시설된 것으로 보인다.

경상좌수영 소속 진성 중 특이한 평면형태와 부속시설을 보이는 것으로는 조선후기 부산포진성과 조선후기 서생포진성이 있다(그림 15·16 참조). 두 진성 모두 임진왜란 전 사용하던 수군진성이 일본군에게 함락된 후 진성의 성벽이 헐려 인근 왜성축조에 사용되거나 폐쇄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일본군의 왜성을 조선의 수군진성으로 삼은 경우이다.

조선후기 부산진성은 임진·정유왜란의 종전으로 일본군이 물러간 후 부산왜성의 지성(支城)인 자성대왜성을 수군진성으로 이용하였다. 일제강점기 사진을 통해 볼 때 조선식 성문과 "南遨咽喉(남요인후)", "西門鎖鑰(서문쇄약)"이란 명문우주석(銘文隅柱石)이 경사져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성문 일부와 여장을 부분적으로 보수하여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생포진성의 경우 서생포왜성을 약간의 수리를 거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지도를 통해 보면 남문과 북문이 주 통로로 보이며 선소 쪽으로 암문이 그리고 산정으로 가면서 중성문과 서문이 그려져 있다.[22] 서문은 일본식 성곽의 승형호구(枡形虎口, 마스가타 고구치)[23]로 사각형옹성문형태이고 남문지와 북문지도 같은 형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문지의 경우 문지의 동북벽이, 북문지의 경우 서북벽이 왜성의 전형적인 문지형식과 달라 고지도에서와 같이 문루설치 등, 왜성을 개조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중성문은 주통로는 아니며 일본의 평문식형태인 '평입호구(平入虎口)'를 보이고 있다. 문지의 너비는 4m 내외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개전 초기 한양으로 진격할 때 조선의 읍성들을 일시 이용하거나 임시 시설물에 주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 부산포진성과 서생포진성은 역으로 조선수군이 왜성을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2) 나동욱, 2017, 「서생포왜성의 축성사적 의의-조사성과를 중심으로-」 『박물관 연구논집』 23, 부산박물관.
23) 나동욱, 2006, 「왜성의 축조수법에 대하여」, 『박물관 연구논집』 12, 부산박물관.

그림 9. 부산 경상좌수영성의 서남쪽 치성

그림 10. 울산 개운포영성 남쪽 치성

그림 11. 울산 개운포영성 동문 바깥 해자

그림 12. 부산 다대포진성 동북쪽 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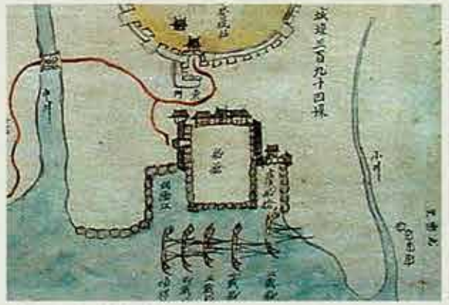


그림 13. 부산 경상좌수영 선소

그림 14. 부산 경상좌수영 입구 해문 표기

그림 15. 조선후기 부산진성 서문(독립기념관 소장)

그림 16. 조선후기 『지방군현지도(1872)』 중 서생포진성

Part. 05

세계의 유산 보존

자연과 함께하는 주거환경 및 건축의 변화

Changes in residential environment and architecture in harmony with nature

(주)지음플러스 대표, 프랑스건축사 HMONP,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김성훈

머리말

오늘날 세상의 변화는 우리의 많은 일상뿐만 아니라, 건축, 나아가 도시 전반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몇십 년간 일어날, 그리고 상상 속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난 몇 년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 재택근무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영상회의 툴을 통해서 효과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 각종 어플로 배달과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양질의 영화나 드라마를 OTT 플랫폼 서비스를 통하여 편안한 침대에서 내가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심지어 Chat GPT를 비롯한 AI시장은 1년이 멀다 하고 우리의 삶을 급속도로 바꾸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코로나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뿐만 아니라, 사회 조직체계의 변화도 바뀌었다. 수직적인 사회체계에서 수평적인 사회조직으로 바뀌고, 평생직장보다는 일과 본인의 생활을 더욱 중요시하게 되는 사회풍토가 생겼다. 불필요한 인간관계, 불필요한 회식 등이 사회 전반에 없어지는 나름 긍정적인 역할도 있었지만, 이로 인해 붕괴한 사회관계, 늘어나는 상업공간 등의 공실·폐업 등은 건축인들에게 새로운 숙제를 안겨준 것은 분명하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자연을 대하는 자세의 변화와 주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건축과 주거환경의 변화, 특히 자연과 건축의 공존 모색을 추구하는 디자인 등과 앞으로 건축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날 건축의 변화

필자는 그중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자연과 대립하지 않고 공존하고자 하는 건축>의 자세 변화라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인지하는 것처럼 무분별한 자연의 남용으로 인한 자연의 경고는 혹독하다. 최근에 인류의 큰 재앙이었던 코로나 19를 비롯하여 가뭄, 홍수, 폭염 등의 기후위기로 지구는 너무나 아파하고 있다. 혹자는 지구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가용 범위를 넘어서서, 많은 인구를 지구상에서 감소하기 위한 지구의 자정 작용 중 하나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과 함께, 코로나의 근본적인 문제인 생태계의 변화에 건축과 도시는 대응을 하여야 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여러 사업과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환경을 위한 정책에서 강조하는 재생에너지와 자원효율성 향상으로 인해서 파란색 태양광판의 건물과 컴팩트하고 창의 면적을 줄인 탱크 같은 건물들이 우리 도시의 주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라는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들로 이미 가득찬 한국의 대부분 도시에 또 다른 흉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요즘 많이 설치되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의 태양광 설치 사례들. 에어콘 실외기와 함께 또 다른 도시의 흉물들로 전락하고 있다. 분명히 에너지 효율을 높인 새로운 해결책이지만, 도시미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산업의 괴물들을 만들어 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자연과 함께 해야 하는 "건축과 공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에만 집중하기보다, 자연의 근본인 "생태"와 "녹색 환경"에 좀 더 접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동안 자연을 지배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심리가 코로나와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인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 19로 인한 나름 긍정적인 영향 중 하나이다.

인간은 자연에 대한 본능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자연에서 진화하였고, 자연환경과 연결되었음을 느껴야 하지만, 고도의 산업발달과 과도한 자원소비 등의 이유로 인한 바극적인 결과도 인간 스스로 그대로 안게 된 것이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요구는 건축, 도시, 공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적용이 될 것이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Biophilic design이 여러 방면에서 적용될 것이다. 바이오필릭 디자인(Biophilic Design)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의 저서 '바이오필리아(Biophilia)'에서 확산된 개념이다. 생명체(Bio)와 사랑(Philia), 생명체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Biophilia에 근거한 디자인으로, 자연을 현대적인 건축과 어울리게 디자인함을 뜻한다.

자연의 요소 등을 건축 및 공간에 반영할 수도 있으며, 자연의 형태와 경험을 건축디자인 모티브로 적용하는 때도 있으며, 싱가포르를 필두로 코로나 출현 이후 전 세계의 새로운 건축 트렌드로 각광 받고 있다.

일본 후쿠오카의 복합문화센터 '아크로스 후쿠오카'. 14층 규모 건물 한쪽을 계단식으로 설계, 여기에 정원을 설치했다.

지음플러스가 설계한 국립수목원 숲이오래, 생태계의 촉매 역할을 하는 '벌'과 '벌집'을 건축언어로 형성화 하며, 주변 식재와 자연과 어울리는 BIOPHILIC DESIGN 건축을 구현하였다. / 발주처 : 국립수목원 / 설계 : 지음플러스

주거환경의 변화

앞서 언급한 자연과의 접촉,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 Biophilic design의 반영 등은 주거환경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단독주택에서처럼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없는 공공주택이나 일반 건축에서 하늘과 바람과 나무와의 접촉의 요구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며, 많은 건축 시장에서는 생태적 요소들과의 관계를 건물에 어떻게 유입하느냐가 앞으로의 큰 숙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많은 이들이 집값이 높고, 단독주택과 비교, 상대적으로 주거환경도 좋지 않은 아파트에 계속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심지를 대표하는 공동주택의 삶의 방식이 쉽게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도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만남과 업무상의 편리함을 버릴 수가 없으며, 업무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화, 교육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도시의 이벤트들이 주는 매력과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시가 주는 부동산의 가치를 포기하기는 힘들 것이다. 도시에 단독주택이 땅값과 필요 용적률 등의 이유로 들어오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주거 타입인 아파트에 주거인들의 새로운 요구로 인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주택의 변화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가 아파트 공간의 "단독주택"화와 생태조경 및 공간의 확대일 것이다. 먼저, 단독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 마당이 있다는 것이다. 하늘과 땅을 소유하고 이들과의 접촉이 가능한 마당은 단독주택에서 가장 매력적이면서 건강한 공간이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마당의 역할을 하는 곳은 우리가 그동안 확장 실내공간으로 변환을 했던 "베란다"공간 뿐이다. 필자가 14년 가까이 있었던 프랑스의 경우에는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의 유무 차이가 집의 가치를 많이 좌우한다. 사실 그들이 발코니를 사용하는 시간은 아침, 저녁 약 2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장소에서 화분에 물도 주고, 커피를 마시고, 날씨가 좋은 날 간단한 아침 식사 등도 하며, 실내 생활에서 할 수 없는 또 다른 삶의 만족을 누리고 그 행위들을 사랑한다. 즉 다소 실내가 좁더라도 야외공간에서의 행위를 사랑하는 민족성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그러기에 발코니와 베란다는 프랑스인들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주거 공간이다.

필자가 프랑스에서 실무를 익혔던 Ateliers Lion 보르도 공동주택 프로젝트이다. 테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층형으로 상품을 개발한 사례이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BOSCO VERTICA. 공동주택의 지속가능화와 발코니 녹지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발코니가 외부공간의 테라스의 기능을 넘어, 지역에 좋은 공기를 제공하는 산소 탱크의 역할을 하는 건축물로 발전한 케이스이다

프랑스 북부 지방에 위치한 Lille의 LE BOIS HABITE 단지 풍경이다. 3~4층으로 이루어진 연립주택의 형태로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지만, 효율적인 단지 배치로 인해 생태 단지를 이룬 훌륭한 생태 단지 성공사례이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주택의 높이만큼이나 되는 나무들로 공용공간들을 구성하여 "나무에 서식하기 또는 나무와 같이 살기"란 의미가 있는 Le <Bois habité>란 브랜딩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길과 주거 사이의 경계에 생태수로를 두어 개인과 공용공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다양한 생물 다양성을 확보한 점이 인상적이다.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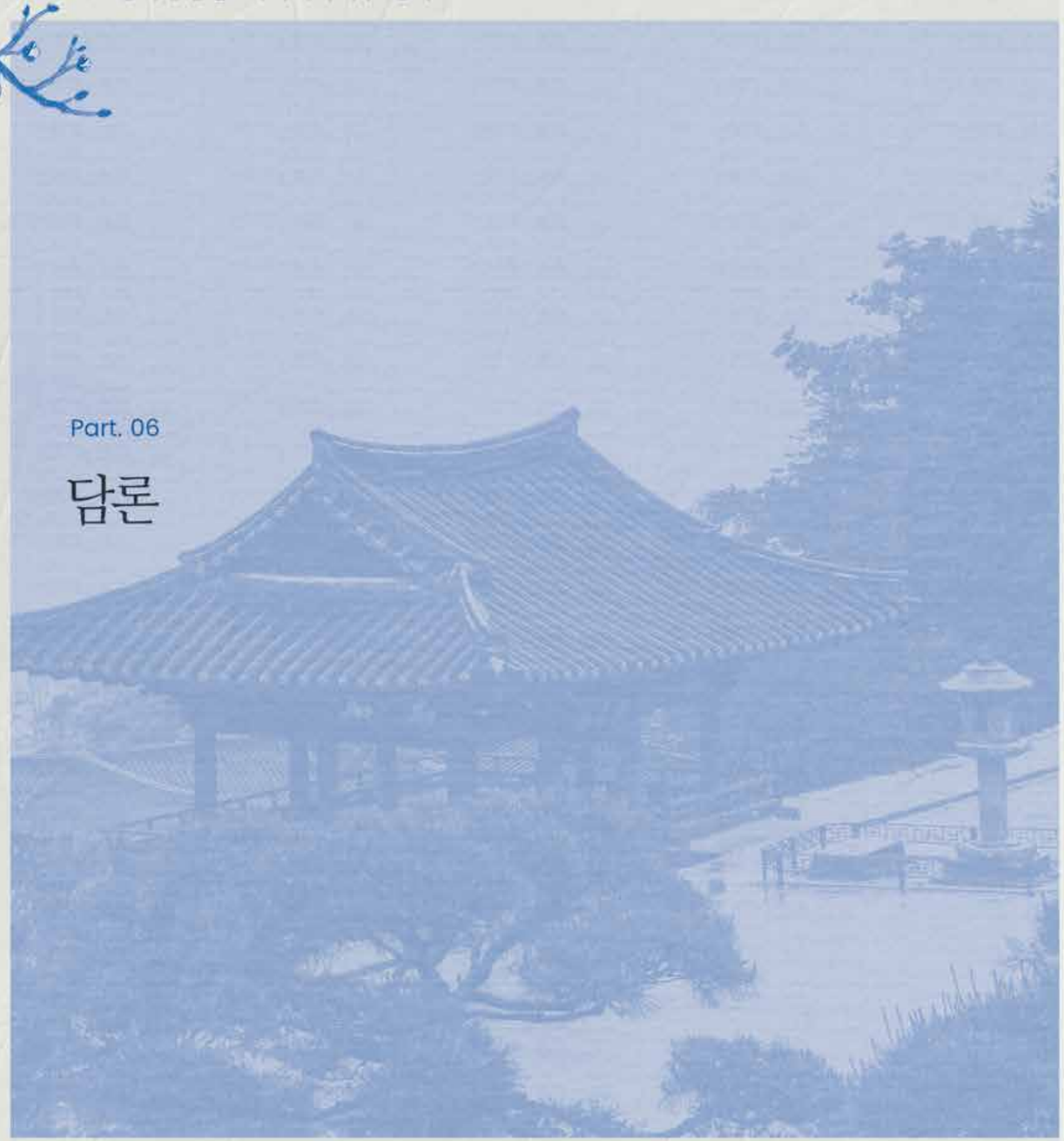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근본적인 "삶과 공간의 질"에 대한 질문이다. 많은 대중은 온라인의 생활을 넘어 AI라는 사상세계에도 적응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의 공간이 현실의 공간을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은 코로나 사태 때 이미 경험을 하였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지어진 건물과 공간에 대해, 전처럼 조건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능동적으로 선별해서 갈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본인이 선택한 공간이 매력적이지 않고 자연환경에 위배가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주저 없이 작은 핸드폰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주거"의 개념도 바뀌고 있다. 부동산 가치가 항상 중요한 한국사회에서 주거 본질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근본적인 요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고, 이는 본인의 집의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그동안 중요시하지 않던 발코니를 개인 테라스로 다시 바꾸는 모습들을 쉽사리 볼 수 있게 되었다

대중들은 매력적인 공간을 원하고, 자연과 교감을 하며, 삶의 근본적인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도시와 건축"을 원한다. 땅값과 위치적 이점을 넘어서, "좋고 건강한 건축", 바로 근본이 필요한 세상이 된 것이다. 필자는 그 세상이 바로 <자연과 함께하는 주거환경과 건축>이라고 생각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Part. 06

담론



중요한 것은 '국가유산'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실질이다 | 43
'문화재'라는 말이 사라진다고? | 46

중요한 것은 '국가유산'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실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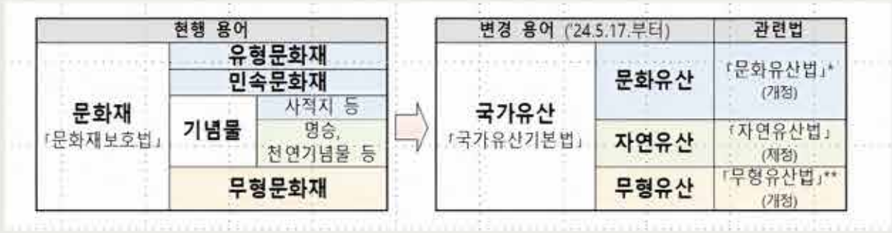
전 연합뉴스 기자 | 김태식

새로운 변화에는 언제나 혼란이 따르기 마련이라, 2024년 5월 17일, 목전으로 다가온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또한 그에서 하등 예외일 수는 없다. 그에 관련하는 지자체라든가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를 둔 설왕설래가 오간다.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은 이 새로운 법 체계 도입이 우리가 아는 문화재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1년째 요란스럽게 선전 홍보활동을 한다. 왜 이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우선 문화재청 목소리를 귀 담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도입 배경으로 그들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국가유산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정립하고자 함"을 표방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법 체계가 과연 이런 배경을 제대로 담았으며,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은 그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국가유산기본법과 그에 따른 새로운 관련 법령 정비는 기존에 통용하는 문화재 범주와 그에 대한 새로운 분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기존 문화재 분류 체계인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 네 범주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세 가지로 재편했다. 일본 문화재보호법을 그대로 빌려다 쓴 기존 문화재 분류 체계가 얼마나 많은 모순을 장착했는지는 새삼 지적이 필요 없거니와,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상충이 문제였다. 이를 국가유산기본법은 저와 같은 세 가지로 재편을 시도한다. 이것이 기존 분류 체계에 견주어 훨씬 합리적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새로운 분류가 아주 문제가 없는가?

무엇보다 무형문화유산 항목을 따로 설정한 대목은 문제가 될 대목이라, 이것이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대별한 세계유산 등재 시스템과는 별도로 독립 분파한 이른바 인류무형유산제도를 응용했음이 분명하다. 유네스코가 말하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우리네 유형과 무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분명히 유형유산 관점에 그것만을 등재 대상으로 삼은 것이 분명하지만, 그를 보강하고자 그 세계유산 시스템이 커버하지 못하는 새로운 문화유산 소재로 무형유산을 별도 항목으로 독립시켰다.



물론 세계유산이라 해도 이른바 인류보편적 가치(OUV)라 해서, 그 핵심가치는 무형에 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점에서 무형유산을 등재 대상으로 삼는 인류무형유산은 엄연히 세계유산 양대 분파인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중에서도 당연히 문화유산에 속하는 것이다. 이 모순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 유네스코는 인류무형유산이라는 별도 등재 시스템을 어정쩡하게 만들어 운영 중인 것이다.

한데 이 모순을 국가유산기본법은 그대로 가져왔다. 더 간단히 말해서 국가유산기본법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더불어 삼두마차로 내세운 무형유산은 실상 문화유산의 일부다. 그 일부를 별도 항목으로 내세운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간단히 말해 기왕 유산을 분류할 것이라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두 가지로 충분했고 그것이 한층 명료했을 테지만, 거기다가 그 부분집합인 무형유산을 독립한 일은 흠이다.

다음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라는 명칭 혹은 개념 자체를 '국가유산'으로 치환한다. 이 국가유산이라는 말은 그 법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마뜩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갔다. 기존 문화재보호법과 비교할 때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라는 용어를 그대로 '국가유산'이라는 말로 대체했다. 이에서 바로 문제가 돌발한다. 문화재라는 말은 국가유산이라는 말과 등치할 수 없다. 본래 이 법률 제정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둔 문화재 대체 용어의 원천 소재는 heritage였다. 왜인가? 이것이 바로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는 근간의 이유였는데, 문화재文化財라는 말은 결코 자연유산을 포함할 수 없는 까닭이었다. 문화재는 문화에 의한 소산이라는 뜻이며, 문화文化는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니, 자연유산이 문화재에 포함될 수 없는 모순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 모순을 어찌 해결할 것인가?

물론 자연과 인간을 분리할 수 있는가 하는 근간의 문제가 대두하지만, 이 점은 여기서는 논외로 치고 외국을 보면 우리랑 비슷한 처지를 공유한 일본을 제외하고서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은 대체로 구별하며, 이웃 중국의 경우에는 문물文物이라는 훨씬 좋은 대체제가 있다. 유네스코를 보면 무형유산을 별도로 독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문화재는 간단해서 그것이 생성된 내력에 인간이 개입했느냐 아니했느냐에 따라서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과 자연유산natural heritage 두 가지로 분류할 뿐이다. 중국에서 쓰는 문물文物이라는 말은 文과 物의 합성어라, 文이 바로 인문人文이라 해서 인간 활동이 남긴 흔적을 말하며, 物이 바로 자연유산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용어 개발에 실패하고선 계속 문화재라는 용어를 자연유산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했던 것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이 말하는 국가유산은 곧 heritage에 대한 대응어로 문화재청이 내세운 것이다. 그 고민의 일단을 풀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나름 크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한데 무엇보다 '국가'라는 말 때문이다. 이 국가라는 말이 지니는 묘한 색채는 차치하고, 문화재라는 말을 국가유산으로 대체하니, 당장 국가유산이 아닌 것들, 예컨대 명백히 지역적인 색채가 훨씬 강한 것들은 어찌해야 하는가가 문제로 대두한다. 물론 이조차 국가유산기본법은 국가유산이라는 범주로 포섭하려 한다. 문화재의 대체 용어로는 유산遺産이 있을 뿐이지 그것을 국가유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유산이라는 말이 아직 일상생활 보편어로 정착되지 않았고, 또 무엇보다 한자나 영어를 병기하지 아니하면 다른 뜻도 함유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 까닭에 굳이 국가라는 말을 붙인 고육지책이 있었다고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유산에다가 굳이 국가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너무나 많은 곡해를 부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유네스코가 대표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문화재를 재편하려 했다면, 차라리 그 절대 기반이 된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맞추어 '문화자연유산'이라 해야 했으며, 그에 따라 문화재청 새로운 간판 또한 국가유산청이 아니라 '문화자연유산청'이라 하는 편이 좋았다. 물론 이 경우 문화유산·자연유산 청'이라는 합성어가 당장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단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용어라고 하는 것은 쓰기 나름이라 그것이 정착하는 데 필요한 것은 시간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한 대목은 어쩌면 피상에 지나지 않는다.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들,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바뀐들 무슨 상관이랴? 그 명칭이 뭐가 됐던 더 중요한 것은 형식의 변화에 동반하는 실질의 변화다. 문화재청 역시 단순히 그 법률을 바꾸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국가유산(=문화재)' 도입이 문화재를 향한 근간의 인식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가?

문화재청은 이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그 시행을 앞둔 지난 1년간, 줄기차게 그 변화의 정당성을 홍보하며 무엇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주입하려 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두고 설왕설래한다. 무엇보다 실제 그 업무를 일선에서 수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들에서는 우왕좌왕이다. 그 반응은 물론 천차만별이지만, 다들 묻는다. 뭐가 바뀐다는 것인가?

문화재라는 말을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것 말고 뭐가 실질에서 바뀐다는 것인가를 물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한다. 문화재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는 특히 문화재 발굴조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문화재라는 간판을 떼어버리고 국가유산으로 바꾸라는 권고문이 하달되었는데, 그 권고문에 이들 기관에서는 곤혹스럽기만 하다. 예컨대 무슨 문화재연구원이라는 간판을 하루아침에 국가유산유산연구원 같은 것으로 바꾸라니? 국립도 아닌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난리다. 그러니 다들 문화재라는 기관에서 슬쩍 바꾼 문화유산연구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기로 한 모양이다. 한데 국가유산기본법이 탑재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에서도 돌발하기 시작했다. 저들 기관만 해도 주로 고고학 발굴조사를 담당하지만, 문제는 문화유산 사업만 하는 게 아닌 까닭이다.

지자체는 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문화재라는 말을 '국가유산'이라는 말로 교체하는 바람에 더 처지가 묘해진 것이다. 당장 문화재 관련 전담 부서만 해도 문화재과는 국가유산과로, 문화재계는 국가유산계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돌발한 것이다. 그래서 편한 대로 우선은 문화유산이라는 말을 선호해서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계로 바꾸기로 한 모양인데, 그에 따른 문제가 적지 않다. 문화유산이라 하면서 자연유산 업무도 수행해야 하는 이율배반이 수반하는 것이다. 천연기념물 관련 업무가 대표적이라,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계라면 자연유산 업무는 배제해야 하는 것이 맞다.

나아가 국가유산이라는 말이 주는 위압감, 혹은 차별심리도 문제다. 앞서 본 대로 국가유산이라는 말은 기존 '문화재'라는 말을 대체한 용어다. 하지만 이것이 지역으로 내려갈 때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기존 국보니 보물이니 사적이니 하는 것들이야 국가지정 문화재라 해서 국가유산이라는 말을 쓰는 데 상대적인 위화감이 덜하겠지만, 그렇다 해도 이 경우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유산이기 이전에 지역에서 저들은 지역문화재다. 물론 국가유산기본법과 관련 법률에서는 향토유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알지만, 이 향토유산은 말 그 자체로 국가유산을 대립하는 개념이다. 이런 모순에 봉착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유산'이라는 개념 혹은 제도를 도입했다는 소식도 벌써 들리는데, 이는 국가유산이 함유한 문제점을 드러내 준다.

하지만 국가유산기본법과 관련 법률 정비에 따른 새로운 유산 제도 시행이 초래하는 가장 큰 논란은 과연 이를 통해 실질로 유산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다들 묻는다. 그래 국가유산기본법이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문화재가 이런 새로운 법률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런 물음에서 많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물론 새로운 제도는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고, 앞서 말했듯이 그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초기 혼란은 사회 어느 부문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니, 그런 점은 감안하고 일단은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에 동반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정책 혹은 그 방향이라 내세운 것들을 보면 저런 의구심들을 그냥 흘려버릴 수만은 없다.

국가유산청으로 바뀌게 될 문화재청은 각종 화려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 한데 그 어느 것에서도 진짜 바뀌는구나 하면서 무릎을 치게 만드는 대목이 부족하다. 그래서 유산의 무엇이 달라진다는 것인지 체감할 대목이 쉬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문화재가 국가유산이 되면, 그래서 이젠 국가유산으로 떼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것이 진짜 국가 성장동력이 된다는 것인지, 그렇다고 말은 하는데, 그런 방향 혹은 싹수가 쉽게 보이지는 않는다. 유형유산도 기존 원형 존치 개념을 버리고 가치 전승 개념으로 보존을 바꾼다 하는데, 과연 바뀔까? 지금 이 순간에도 틈만 나면 원형 고수를 이유로 문화재 주변 각종 개발 압력을 억누르는데, 과연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 개발 촉진법인가 아니면 개발 억제법인가? 이조차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나는 언제나 문화재는 개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못하게 해서 망한다고 보는 사람이다.

이런 숙제, 진짜 숙제가 우리한테는 남은 것이다.

‘문화재’라는 말이 사라진다고?

문화재수리협회 상임이사 | 박용철

국가유산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기관은 야단법석이다. 행여 보폭을 맞추지 못해 대열에서 이탈하는 기관이 있을까봐 염려하는 것일까?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겠지만 1년여 이어져온 선전활동에 피로감마저 느낀다. 그 피로감 속에서도 특히 심한 불편함이 드는 경우가 있으니 ‘문화재’라는 말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문화재’라는 용어가 사라진다고 하는 주장은 소멸시켜버리겠다는 듯한 태도로 비춰진다. 심지어 여기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기조차 불편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거부감은 저항심으로 변하게 된다.
‘문화재’라는 용어가 갖는 포용성의 문제는 일찍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바이다. 그것을 그들은 ‘한계’라 표현하였다. 세계적으로도 ‘heritage’라는 용어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또한 타당하기도 하기에 그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을 설정한다는 취지에도 십분 동의한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류법이 뒤죽박죽이라 뭔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는 데에는 오래 전부터 불편해 해왔던 문제를 해결하겠거니 하는 취지에서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새로 바뀌는 법의 내실이 어떻든, 문제점들이 무엇이든 그런 것을 논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저 왠지 모르게 느꼈던 불편함의 정체가 무엇때문이었는지 짚어보고자 함이다.

‘문화재’라는 용어가 사라진다고 하는 근거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가 그를 대치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란 무엇인가? 새로운 분류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닌가? ‘문화재’라는 단어 대신 포괄성 높은 ‘유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공감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문화재(또는 유산)의 범주를 충분히 포용하지 못했던 잘못을 ‘문화재’라는 단어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드잡이판은 거북하기가 견줄 데가 없다. 좀 더 냉정히 말하자면 그 목적을 뭐라 했든 새로운 용어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이라는 용어가 ‘문화재’라는 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분류체계를 위해 도입한 용어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접근할 수는 없었을까? 작금의 분위기는 ‘문화재’라는 단어를 척결대상으로 여기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은 문화재라는 말이나 문화유산이라는 말이나 별로 차이를 못 느끼고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유사한 경우일지, 반대의 경우일 지는 모르겠으나 지정번호로 법석을 떨었던 때를 생각해보자. 그것은 단지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관리를 위해 또는 분류를 위해 붙인 번호일 뿐이라고 하다가 급기야 제도를 바꿔버리기까지 하는 그 난리를 치지 않았던가? 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번 용어변경은 단지 분류체계의 변경일 뿐이라고 소심하게 처신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그 때 지정번호를 없애버린 행위에 동의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궁금했던 것이 과연 국보 1호가 가장 가치 있는 문화재라고 여기는 비율은 얼마나 됐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정번호를 없애버려서 불만스러워 할 국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있었다. 요는 그 방식이 권위적이고 폭압적이었다는 데에 개인적 저항감이 컸다. 생각해 보면 그 때도 ‘제 몇호’라 하던 구시대의 방식을 없애버린 걸로 끝맺었으니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시행착오 없이 ‘문화재’라는 구태를 없애는 것으로 귀결하자는 것이 효율적이라 본 것일 수도 있겠다. 어차피 그렇게 될 거.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자면 사실 법 하나 바꿨다고 ‘문화재’라는 말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설레발이다.(이것은 순화한 표현이고 내심은 ‘쪽압적’이라는 말을 쓰고 싶었다.) 우리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곳은 법을 관장하는 기관이 아니다. 때로 공감되지 않는 기준을 정해서 그렇지 국립국어원이라는 곳이 엄연히 존재한다. 적어도 그런 한에는 ‘문화재’가 표준어이고 ‘국가유산’은 비표준어이다. 설령 ‘국가유산’이 표준어로 등재된다 해도 ‘문화재’라는 말이 사라질 지는 알 수 없다. ‘국가유산’의 뜻이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문화재’라는 단어와 병용되는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 ‘문화재’라는 말이 비표준어로 정의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처럼 쾌도난마식으로 정리되기는 어렵다. 언어의 사회성 때문이다. 비표준어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면 표준어로 선정되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짜장면과 자장면을 들 수 있다. 한 때 짜장면으로 통용하여 틀렸다는 말 듣지 않고 잘만 사용해 오던 사람들에게 ‘자장면’이 맞는 말이라 자기들 뜻대로 정해버렸으나 국민들이 ‘그까짓 거’ 하면서 계속 ‘짜장면’을 먹어대자 다시 회귀하고 말았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법 하나 만들었다고 ‘범용적으로 사용해 오던 기존의 용어는 사라진다’고 위세를 부리는 것은 대단히 폭력적이다. 심지어 모년 모월부터 사라진다고 날짜까지 명시해 가면서 말이다. 군대도 아니고 파시스트가 지배하는 시절도 아닌데 말이지. 사실 주무관청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홍위병들이 날뛴 경우일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나의 불편함은 기실 이러한 폭력적 집행에 대한 거부감에서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문화재’라는 용어가 소멸한다는 것에 대해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자. 비지정문화재에 관해서이다. 국가유산이라는 용어가 문화재라는 용어를 전면 대체한다고 하면 비지정문화재는 뭐라 해야 하나? 비지정국가유산이라 해야 할텐데 뭔가 말이 안되는 소리 같다. 수백년 동안 우리 동네 어귀를 지키고 계신 장승할아버지 할머니는 국가의 도움이라곤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창졸간에 소유권을 분명히 하게 생겼다. ‘이 땅에서 나는 것은 풀 한포기 돌 한 덩어리까지도 전부 국가소유이니까요’라는 식의 주장을 한다면 ‘이게 어느 시대의 발상인가’ 할 것이다. 전체주의도 아니고.

게다가 문화재행정의 최정점에 자리한 그 기관은 비지정문화재는 그들의 영역 밖의 문제라는 주장에 경탄할만한 일관성을 보여왔었다. 잘못한 일은 아니지. 법적, 행정적, 제도적으로 맞는 말이었으니까. 그 일관성이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바꾸라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자가당착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할 수 있다. 이제 와서 비지정문화재까지 껴안겠다고 근본적인 원칙을 바꾼 것은 아니겠지. 다만 그런 경우 세부 분류기준을 적용하라고 할 수는 있겠다. 그렇게 하면 장승할아버지는 비지정문화유산이라고 하면 될 것이고 그 옆에 서서 장승할아버지에게 그늘을 제공해주며 수백년간 마을을 보살펴주던 노거수는 비지정자연유산이라 하면 될 것이다. 아, 이렇게 명쾌한 해결책이 있었구나. 그런데 좀 이상하다. 비지정문화재는 그들의 영역 밖의 일이니 굳이 그 분류체계를 따라갈 필요가 없지 않나? 명칭은 말할 것도 없고. 게다가 그처럼 분류체계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정점에는 ‘비지정국가유산’이 등장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지점에서 공감력은 결국 퇴색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니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마치 무지한 국민을 계몽하겠다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다. ‘문화재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의 심리에는 재화에 대한 탐욕이 깃들어 있고 ‘국가유산사랑’이라고 하면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고 ‘문화재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특정 분류된 헤리티지만을 사랑하겠다는 뜻도 아닐 것이고. 사실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던 일반 국민들은 그 말이 자연유산을 포함하든 말든, 무형유산을 의미하든 말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 분류체계 따위에는 더욱 관심도 없다. 말이 뭐가 중요한가? 뭐라 부르던 그저 문화재는 소중할 뿐이고 그 마음이 용어에 따라 달라질 리도 없다. 그런데도 국가유산이라 바꿔 부르지 않고 기어이 문화재라고 부르는 고집을 부린다면 문화재사랑의 감정이 의심받게 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문화재의 가치를 절하하게 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용어가 인식을 좌우하는 것이 옳다면 앞으로 문화재라는 용어를 고집스레 쓰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인식도 부족하고 속물적이며 오염된 문화재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 취급될 판이다.

높은 기관에서 말했던 도입배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자.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와 ‘정책방향을 전환하여’처럼 도입의 수단은 정책에 있다. 이후에 거론되는 궁극의 목적을 위해 실행하는 방법이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계도 극복하고 방향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목적은 무엇인가?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국가유산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증명하고자 한다’는 것이 목적이라 하고 있다.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것이 ‘국가유산’인지 ‘새로운 역할과 가치’인지 수식을 받는 체언의 선택에 따라 해석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편익과는 무관해 보인다. 아니, 시작부터 불편함과 불익을 안겨주고 있는 기분이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편익을 준다는 말은 그저 갖다 붙인 미사여구에 불과한 것인가? 문화재에 대해 기호와 애정을 갖는 사람들은 편리나 이익을 추구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편익 또는 이익이 지상의 가치라는 공리주의는 역사의 유물이 된 지 오래이다. 그와는 무관하게 문화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면(더구나 그게 용어 정도라면) 기꺼이 그 흐름에 순응하리라고 본다. 그렇지만 광풍처럼 불어대고 있는 수정과 변경의 요구들은 다분히 권위적이며 다소 폭압적이기까지 하다. 일사불란하게 대오를 갖추기 바라고 있다. 출발하기 전부터 도처에서 반론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국가유산’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전부를 아우르는 용어를 탄생시키기는 해야겠는데 적절한 해답은 구해지지 않다 보니 저런 단어로 귀결이 되었겠지. 그런데 그게 허점 투성이라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지 못할 것을 우려했던 걸까? 그렇게 되면 도대체 그 요란을 떨면서까지 했어야 하느냐는 반론에 맞닥뜨리는 난처한 경우가 예상될 것 같기도 했을 테고. 그래서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것이라 추측하면 개연성이 있으려나?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대치하겠다는 시도는 버거워 보인다. 숱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조직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가능할 것이다. 그 밖으로 나가면 어떨까? 먼저 당위성을 확보해야 할 텐데 아득하다. 이미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을 드넓은 세상에서 어찌 하랴. 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회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서 범용성을 지닌 채 생활 속의 용어로 정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표준어로서 우위를 차지해야 하는데 이건 아득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끝이 보이지 않는다. 법이라고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니다. 국민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아예 판을 뒤엎어버린 ‘분류번호 삭제사건’같은 폭압적 방식을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한다. 시민들을 존중한다면 사회의 넓은 영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세상에 대해 법과 행정력을 앞세워 강요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는 품을 넓혀주어야 할 것이다.

Part. 07

문화유산 서가

문화재의 개념 | 50
만들어진 사회적 기억, 문화재 인식의 역사 | 51
모나리자의 집은 어디인가: 문화유산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의 세계사 | 52
Uses of heritage | 53

유산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읽어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 이수정

유산을 인식하는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문화재'라는 용어를 뒤로 하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단순히 용어의 변화를 넘어선 그것을 인식하는 관점의 변화를 의미한다.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 즉 문예부흥운동은 유산의 개념을 탄생시킨 토대이다. 인간과 역사에 대한 높은 관심은 텍스트가 아닌 실물로 인류의 정신과 활동을 탐구하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었다. 역사적인 증거물로서 유산을 이해하였다가 20세기 들어 과거-현재-미래 세대 간에 상속을 통해 전달되는 유·무형적인 유산으로, 그리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원으로 유산의 성격을 규정하는 관점이 변화되었다. 최근에는 역사적 증거-유산-자원의 범주를 넘어 유산을 '문화적 과정(cultural process)'으로 보는 진보적인 관점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유산이라는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규정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대상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하는 행위의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 유산의 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한 책을 소개한다.

『문화재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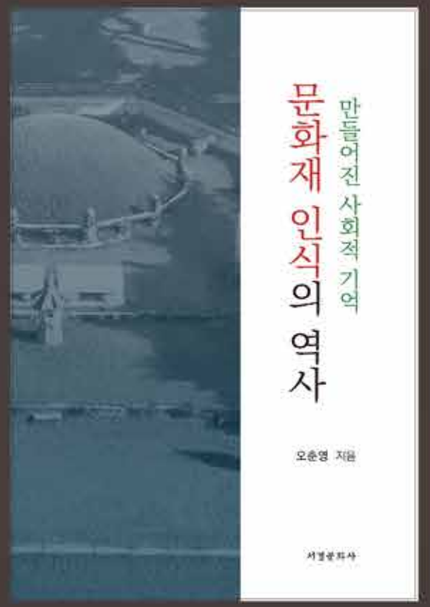
1994년 발간된 프랑스의 미술사학자 앙드레 샤스텔과 건축사학자 장 피에르 바블롱이 함께 쓴 『문화재의 개념』은 '문화재'라는 용어의 탄생시기부터 최근까지 개념이 어떻게 자리잡아 왔는지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문화재가 '자산', '보물'을 망라하는 용어로서 프랑스의 영토와 재산, 과거에 대한 프랑스적인 감수성의 역사에서 생겨난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 책에서는 법률적인 정의보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문화재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종교, 군주, 가문, 국가, 행정, 과학 등의 분야와 연결하여 문화재 개념과 역사를 고찰하고 있다.

먼저, 종교분야에 있어서 '성유물'은 진본과 보관을 핵심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재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며, 성유물은 대상에 대한 경애심, 정통성과 가치부여, 집단정체성 형성 등의 측면에서 문화재 개념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군주와 문화재 역시 상호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왕권을 상징하는 다양한 상징물이나 왕의 가르침과 업적 등 역사서술의 결과물,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는 도서관, 왕조의 역사적 사건을 증언하는 고대의 기념물 등은 중요한 문화재이다. 왕조의 상징인 왕궁이나 궁성은 왕조가 사라진 후에야 가치 있는 역사적 증거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은 현세대에게 과거의 산물은 어쩔 수 없이 타자화된 대상이다.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시작은 과거의 산물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보존체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그런데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만든 제도는 특정 시기를 선호하거나 보존하도록 한다. 과거는 그 일부를 임의로 없애거나 새로 만들어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로 인하여 특정 시기의 산물을 임의적으로 선택하게 된 것은 분명 제도적인 한계이다. 지질학, 생태학, 동·식물학 등 과학의 여러 분야는 문화재의 범주를 확대시키는 데에 기여하였으며, 과학적 지식과 정보의 축적은 충분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문화재 분야에서 신뢰성과 보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 외에도 체계적인 목록을 작성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며,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과학과 문화재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이 책은 강조한다.

르네상스를 이끌고 그 속에서 문화재 개념을 형성·발전시켜 온 유럽의 인식을 분야별로 나누어 서술한 이 책은 우리가 현재 유산의 개념을 형성하는 데에 토대가 된 관점과 유산의 범주를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길을 열어준다.

앙드레 샤스텔·장 피에르 바블롱 지음,
김예경 옮김, 아모르 문디, 2016

『만들어진 사회적 기억, 문화재 인식의 역사』



앙드레 샤스텔과 장 피에르 바블롱이 유럽에서 시작된 문화재 개념의 발전과정을 다루었다면 오춘영은 근대를 전후한 시기 또는 그 이전부터 우리에게 문화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보존에 대한 주체성이 있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문화재 개념의 도입이 식민지 근대화를 위한 도구였다는 주장에 반박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는 문화재의 본질적 정의를 '집단이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을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여 중요하게 보호하는 대상'으로 보았다. 그리고 각국의 문화재 관련 정의문을 검토하여 현재 시점에서 문화재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를 국가적 인식, 문화적 가치, 대명사적 개념, 특별한 보호 등 4가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첫째는 문화재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면서, 둘째는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보호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는 이러한 개념 정의에서 과거의 모든 것을 문화재로 인식하는 태도는 특정시기에 관계없이 지속되어 왔지만, 보호대상으로서의 문화재는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적·종교적·예술적 이념에 따라 선택되므로, 구체적 대상이 되는 문화재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고 서술한다.

이어서 개념정의에 포함된 '시간적 가치'와 '사회적 선택'이라는 두 기준을 두고 삼국시대부터 대한제국까지, 그리고 일제강점기로 나누어 문화재에 대한 개념적 인식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문화재 분야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였다. 조선시대에 넓은 의미의 문화재인식과 보호제도가 있었으며, 필자가 정의한 본질적 정의를 충족하면서 앞서 설정한 개념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일부 갖추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근대적 문화재 인식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근대적 문화재 인식에 근접하였지만 제도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고 보았다. 일제강점기에는 지배자 관점에서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것에 대한 대상 선정과 보호가 이루어졌음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고찰이 문화재 분야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완전히 극복하는 관점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아마도 현재적 관점에서 문화재의 구성요소를 설정하고, 현재의 눈으로 과거의 인식을 이해하는 모순적 방법을 적용하여 본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춘영 지음,
서경문화사, 2022

『모나리자의 집은 어디인가: 문화유산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의 세계사』

갈등과 분쟁의 관점에서 유산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모나리자의 집은 어디인가: 문화유산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의 세계사』는 문화재청에 재직 중인 환수 전문가가 쓴 책이다. 저자 김병연은 유산의 소유를 두고 일어난 여러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유산은 누구의 것이며, 어디에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여야 하는지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유산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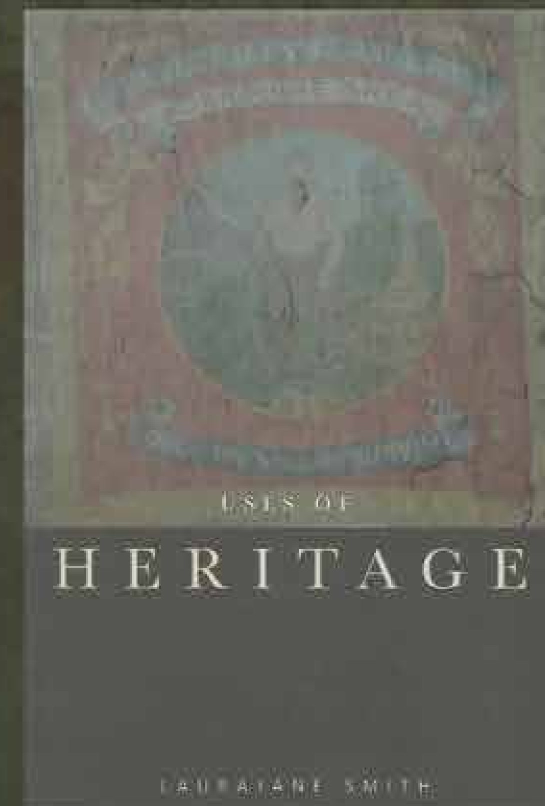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사용한 것이 1954년 채택한 「무력 충돌 시 문화재 보호 협약」(일명 '1954년 헤이그협약')이었다는 점은 그 이전부터 전쟁 중에 발생한 정부기관, 교회, 학교, 개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귀중품이나 예술품 약탈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인류가 예술품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개념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특히 티투스 개선문 등 다양한 유산을 중심으로 근대기까지 문화유산 개념이 형성되고 발전해 온 과정들을 소개하는 방식은 매우 흥미롭다. 또한 유산이 되기까지의 과정, 즉 출처에 대하여 수집품, 장물 등의 사례를 통해 유산에 대한 인식을 읽어나가는 방식도 매우 신선하다. 그 외에도 인간의 유해를 문화유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는 유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가 후에 유산으로 인식하게 된 사례도 상세히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일러주고 있다.

다만 이러한 약탈이나 소유권 분쟁, 그리고 출처의 관점으로만 오랜 기간동안 축적되어 온 유산의 개념과 인식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술품을 포함한 인류의 역사적 산물을 둘러싼 인류의 지적 활동과 역사는 국가별로, 시대별로 다양한 맥락 속에서 고찰되어야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의 책은 거시적인 관점을 미시적 측면에서 보완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유산에 대한 인식을 넓혀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김병연 지음,
역사비평사, 2023

『USES OF HERITAGE』



로라제인 스미스는 영국의 요크대학교 고고학부의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에 『유산의 사용(Uses of Heritage)』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이면서 혁신적인 부분은 그간 유산을 '대상(a thing)'으로 인식하던 관점을 탈피하여 유산을 '문화적 과정(cultural proces)'으로 정의한다는 점이다. 유산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그의 새로운 견해는 유산의 주체가 누구이며, 유산을 관리하는 방식 등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그는 '공인된 유산담론(Authorized Heritage Discourse, AHD)'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현재의 유산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즉, 유산의 의미와 중요성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그들의 주도로 관리되며, 일방적인 교육이나 공유방식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에서 유산의 핵심적인 요소는 물질적인 측면이며, 상대적으로 무형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유산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실제 유산의 가치는 가치를 담아내는 정보를 통해 우리가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할 때에 비로소 형성되므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그러므로 유산은 그 자체가 물리적인 실체이기보다는 오히려 유산이 전달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문화적 과정(cultural process)'이며, 기억, 경험, 정체성 등 인간이 하는 모든 지적·정신적·문화적·사회적 활동이 '유산(heritage)'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유산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데에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유산은 더 이상 물리적인 실체나 산물 또는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의미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이해하는 반복적인 과정으로 인식하려는 시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우리가 유산에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 중요성은 원래부터 존재했다기 보다는 인간의 사유, 연구, 이해, 감상 등 인지적 활동 과정을 통해 구체화 되며, 세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유산은 그것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가 형상화될 때 비로소 유산이 되므로, 유산은 과거를 표현하는 고정된 산물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유산이 언제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지에 관심을 두었다면, 과정으로서 유산을 인식하는 관점에서는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떻게 유산을 해석하였는지'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공동체는 전문가에 의해 형성된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수동적으로 전달 또는 교육받는 대상이 아니라 유산을 경험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을 직접 하는 주체이다. 그러므로 유산에 대한 그의 관점에 의하면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는 곧 유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주체(right holder)이므로 그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이전 단계에서 유산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관점과 연결된다. 즉 유산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행위로서의 유산의 주체는 공동체일 수 밖에 없다. 국가유산체계로 전환하는 시점에 법에 지속가능성, 공동체를 명시한 것은 그러한 맥락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한다.

국가유산체제로의 대전환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유산의 개념에 대하여 보다 근원적인 질문과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한 지점에 와 있다. 역사적 증거물에서 유산으로, 다음은 자원으로, 그리고 이제는 문화적 과정으로 변화되는 개념에 따라 그에 대한 보존·관리의 패러다임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용어의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산체계의 철학적 근간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하며, 그 출발은 대상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용어의 변화가 그 본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로라제인 스미스 지음,
Routledge, 2006

Part. 08

문화유산 산책

고창 중산리
이팝나무

이팝나무 Retusa Fringe Tree		
학 명		*Chionanthus retusa* (치오난투스 레투사)
분류	계	식물계(Plantae)
	분류군	관다발식물군(Tracheophytes)
		속씨식물군(Angiosperms)
		씽떡잎식물군(Eudicots)
		국화군(Asterids)
	목	꿀풀목(Lamiales)
	과	물푸레나무과(Oleaceae)
	속	이팝나무속(Chionanthus)
	종	이팝나무(*C. retusus*)

이팝나무의 이름 유래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쌀밥을 뜻하는 이밥에서 기원했다는 것이다. 꽃송이가 만발했을 때의 모습이 흰 쌀밥처럼 보여 그리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이시옷을 넣어 이ㅅ밥이 되었다가 이팝으로 변했다고 하면 학문적으로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왠지 이 유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 먹을 것이 없어 허기와 싸워야만 했던 그들의 애잔한 모습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굶주림에 지쳐가는 눈길에 무엇인들 먹을 거리로 보이지 않았겠는가. 어쩌면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동생을 달래려 누이는 이팝나무꽃 한 움큼 물려주었을 지도 모른다. 그렇게 죽은 아이의 무덤에서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 보릿고개 즈음에 수북히 흰 꽃을 피웠더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지면 비련의 페이서스는 절정에 도달하려나. 며느리밥풀꽃의 전설과도 유사한 이런 이야기에는 가슴저림으로 인하여 귀기울이고 싶지 않다.

고창 중산리 이팝나무
Retusa Fringe Tree of Jungsan-ri, Gochang

분류	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 문학역사기념물 / 생활
수 량	1주
지정(등록)일	1967.02.17.
소 재 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313-1번지

고창 중산리 이팝나무는 나이가 약 250살 정도로 보이며, 높이 10.5m, 가슴높이 둘레 2.68m이다. 중산리 마을 앞의 낮은 지대에 홀로 자라고 있으며, 나무의 모습은 가지가 고루 퍼져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차량의 먼지 등으로 나무상태는 좋지 못하다. 이 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팝나무들 가운데 작은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크고 오래된 이팝나무에는 거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팝나무의 꽃이 많이 피고 적게 피는 것으로 그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점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팝나무는 물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므로 비의 양이 적당하면 꽃이 알싹 피고, 부족하면 잘 피지 못한다. 믈의 양은 벼농사에도 관련되는 것으로, 오랜 경험을 통한 자연관찰의 결과로서 이와 같은 전설이 생겼다고 본다. 고창 중산리 이팝나무는 이팝나무로서는 매우 크고 오래된 나무로서 생물학적 보존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 가운데 살아온 나무로 문화적 가치도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나무에서 손 닿을만한 거리에는 이 나무에 매료되어 수도권으로부터 내려와 터를 마련한 아낙의 집도 있다. 비록 한 달도 안되는 동안의 만남일 뿐일지라도 그것만을 위해서라도 일 년 정도는 너끈히 기다릴 수 있을 거라는 삶의 마음가짐에 공감하고 또 공감한다. 노거수로 이팝나무가 있는 마을에서는 개화의 풍성함이 농사의 풍흉을 예견해주어 신목으로 받들고 모셨다. 이 나무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연대하며 숱한 세월을 건너왔으려니.
혹여 세상 일에 치여 만개한 때를 조금은 놓쳐도 괜찮다. 너무 늦지만 않는다면 이 나무에서 꽃잎이 휘날려 떨어져내리는 광경에 흰싸이게 되니 그 또한 가슴을 적신다. 그들과 어울리고 뒤섞이다 보면 시간의 흐름을 가늠할 수 없어 한 시간, 반나절, 아니 한나절이라도 모르는 새 훌쩍 지나버렸음을 깨닫곤 한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나섰던 걸음이라면 자칫 끼니를 놓칠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배가 부르다. 아하! 이팝나무라는 이름은 쌀밥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맞는 것이로구나.

- 수형(樹形)으로 볼 때 고창 중산리 이팝나무에 버금갈 만한 나무로는 김해 신천리의 이팝나무와 김해 천곡리의 이팝나무 정도를 꼽을 수 있겠다. 모두 신목으로 보살핌을 받았다. 서사가 깃들이면 광망 유당공원의 이팝나무를 손꼽을 수 있다. 왜적의 침탈로부터, 또 자연재해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식재됐었던 것이다. 진안 평지리 마령초등학교 담장에 붙어 자란 이팝나무들은 더 서글픈 이야기를 담았다. 굶어죽은 아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쌀밥 가득한 나무를 무덤 가에 심었다는 전설이다.

다행히 이름의 유래에 다른 설도 있다. 이 꽃이 절기의 하나인 입하(立夏)에 피기 때문에 '입하목'이라 부르던 것이 '이파나무'를 거쳐 이팝나무가 되었다는 설이다. 비애감 가득한 감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냉큼 이 설을 받아들이고 싶다. 이 설을 받아들여 좋은 점은 개화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봄이 되어 매화부터 시작한 꽃의 전령들이 개나리, 벚꽃, 진달래들의 소식을 전할 때 쯤, 달력에서 그 절기를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 이름이 곧 절기이니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 때부터 기다림이라는 고문이 시작되기는 하지만 남쪽 한 구석 작은 마을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이팝나무가 만개할 때를 기다리는 일은 즐거운 괴로움이다. 중산리 이팝나무는 그 한 때의 풍성한 만남을 위해 한 해를 기다려줄 만한 나무이다. 입하를 일주일 쯤 지난 그 어느 날 나무 주변을 둘러 마련해 놓은 벤치에 앉아 흐르는 꽃잎과 꽃바람과 꽃향기의 너울에 몸을 묻고 있노라면 이 만남을 위해 수백킬로미터를 달려온 노고 따위야 금세 사위어버리게 마련이다. 물소리에 잠겨 흐르는 낭만을 침류(沈流)라 했던가. 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침류할 수 있음을 중산리 이팝나무 앞에서 깨닫는다.

문화재수리협회 공제조합

문화재수리업의 평생 파트너 문화재수리협회공제조합

» 가입대상

- 기존사업자, 신규사업자 모두 가입 가능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 문화재수리협회에 별도 가입하지 않아도 공제조합 가입 가능

※ 신규 사업자의 경우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조합에 가입하여 자본금확인서 발급 후 수리업 등 등록 의무

» 업무 혜택

- 보증서 발급
  - 선금금지급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타 보증기관 대비 최대 7.5배 할인 발급

	S보증기관	문화재수리협회공제조합
기본 보증서 수수료	15,000원	2,000원

- 빠르고 편리한 자본금확인서 발급
  - 업등록에 필요한 자본금확인서를 1일 이내 처리하여 등록관청에 통보

- 저리 융자 제공
  - 출자금의 50% 까지 낮은 이자로 융자 제공

※ 현재, 타보증기관에서 문화재수리업 등의 경우 융자 제공하지 않음

- 간소화 서류를 통한 보증서 발급
  - FAX, E-mail 등 조합으로 계약서류 제출 시 별도 계약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조합에서 보증서 발급 및 계약기관으로 전자보증 전송

» 가입문의

- 전화 : 02-584-1866(내선 3번)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43, 로얄타워 7층
  홈페이지 : https://www.nhfc.or.kr/gbiz

회원가입 안내

회원의 구분

정회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
준회원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관련기술종사자
특별회원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수리관련 전문가 및 관심이 있는 자

회원혜택

혜택구분	회원사	비회원사
G2B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 DB자료(실적 및 경영상태) 정보연계	자동정보연계	해당사항없음
문화재수리 업종실적관리시스템 통상회비 요율	- 요율 0.1% 적용	- 요율 0.2% 적용
적격심사용 실적 증명서 수수료	- 무료 - 온라인 발급	- 건당 5,000원 - 온라인 발급 불가능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발급 수수료	- 무료 - 온라인 발급	- 건당 5,000원 - 온라인 발급 불가능
NICE디앤비 신용평가 수수료	할인	해당사항없음
협회 간행물 구독비	무료	간행물 별 비용발생
협회 문화재수리종사자 교육수강비	무료	교육 별 비용발생

회비

구분	업종	입회비	연회비
정회원	종합문화재수리업	700 만원	100 만원
	전문문화재수리업	350 만원	50 만원
	문화재 실측·설계업		
	문화재 감리업		
준회원	-	10 만원	5 만원

*** 납부계좌 : 국민은행 213601-04-177006 문화재수리협회**

※ 회비 안내
- 입회비 : 가입신청서 제출 후 회비 입금
- 연회비 : 가입신청서 제출 후 회비 입금(가입연도 연회비 면제)

※ 가입신청 제출 이후 입회비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어야 정회원 가입처리가 진행됩니다.

국가유산수리협회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Associ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3 로얄타워 7층 | 02 584 1866 | kcpra@naver.com
www. kcpra.or.kr

ISSN 2951-2131